

채 규 만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 사이버섹스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2005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심리학과  
진 인 영

# 사이버섹스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채 규 만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4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심리학과

진 인 영

## 논문개요

본 연구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성인 사이버섹스 중독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사이버섹스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중독자들의 심리·사회적 특성들과 중독의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사이버섹스 중독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고, 그에 대한 효과적인 교육 및 치료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실시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만 18세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온라인설문과 일반설문을 실시하여 270명의 피험자를 모집했고, 이 중 중독집단은 14.7%였다. 모집한 피험자를 대상으로 김민(2003)이 번안한 Young의 사이버섹스 중독검사지(The Cybersexual Addiction Index : CAI)를 이용하여 중독집단(37명)과 비중독집단(233명)으로 구분하고, 다음의 질문지와 척도를 사용하였다. Cooper(2001)가 제작한 성적 태도와 행동에 관한 질문지를 수정·번안하여 18문항의 사이버섹스 중독의 태도 및 영향에 관한 질문지를 구성했고, 송원영(1998)이 번안한 Kendall과 Wilcox(1979)의 자기통제 척도와 이영호(1993)가 번안한 한국어판 BDI, 그리고 Folkman과 Lazarus(1985)가 제작하고 김정희·이장호(1985)가 번안하고 김은정(1999)이 축약한 스트레스 대처방식 척도를 사용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사이버섹스 중독·비중독 집단의 인구통계학적 차이는 관계상태(relationship status)를 제외한 다른 변인들에서 동일한 특성을 보였다. 두 집단의 이용실태를 비교한 결과 이용매체와 이용시간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는데, 중독집단에서는 성인사이트와 성인방송(24.3%)을, 비중독 집단에서는 이메일(31.3%)을 더 선호했다. 두 집단의 인터넷 이용시간은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사이버섹스 이용시간에서는 중독 집단이 더 많은 시간 사이버섹스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버섹스 중독

집단과 비중독 집단의 사이버섹스 접속동기를 살펴보면, 사이버섹스 중독 집단은 비중독집단보다 성적 흥미를 나눌 사람과의 만남, 섹스자료 구입, 이성과의 데이트를 목적으로, 비중독 집단은 기분전환을 목적으로 사이버섹스를 했다. 또한, 사이버섹스 중독집단일수록 현실에서 하지 못했던 섹스를 한다고 나타냈다. 직장에서 사이버섹스 하는 이유를 살펴본 결과 중독집단은 비중독집단보다 이성과의 데이트, 실제로 할 수 없는 섹스를 하기위해 직장에서 사이버섹스를 한다고 나타냈다. 사이버섹스 중독집단은 비중독집단보다 과거와 현재 모두 섹스통제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보였다. 두 집단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동거집단이 기혼/기혼·연인有/미혼·상대有/미혼·상대無 집단보다 사이버섹스 중독 성향이 더 높았다. 중독 기혼자는 비중독 기혼자보다 성생활 만족이 낮았으며, 결혼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버섹스 중독자는 비중독자보다 자기통제가 낮으며, 우울 성향이 높으며, 스트레스 대처방식 중 감정완화 대처방식에서 높은 경향성을 보였다. 사이버섹스 중독은 이용시간이 많을수록, 과거와 현재의 통제어려움을 겪을수록, 결혼생활에 어려움을 겪을수록, 자기통제가 낮을수록, 우울이 높을수록 감정완화 대처방식을 많이 사용할수록, 상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버섹스 중독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변인은 자기통제, 결혼생활의 어려움, 현재 통제어려움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변인을 설정함으로써 사이버섹스 중독에 이르는 위험요인을 발견할 수 있었다. 중독자들의 중독요인을 구별하는 것은 사이버섹스 중독에 대한 보다 나은 평가에 기여할 수 있으며, 중독 결과를 예측하며 중독자를 위한 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사이버섹스 중독이 이성관계와 결혼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사이버섹스 중독의 위험성을 알릴 수 있을 것이다.

# 목 차

## 논문 개요

<b>I. 서론</b>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2. 이론적 배경 .....	7
1) 사이버섹스 중독의 이해 .....	7
2) 사이버섹스 중독의 태도 및 영향 .....	20
3) 자기통제 .....	23
4) 우울 .....	25
5) 스트레스 대처방식 .....	27
3. 연구문제 .....	30
<b>II. 연구방법</b> .....	32
1. 조사대상자 .....	32
2. 측정 도구 .....	32
3. 연구 절차 .....	35
4. 자료 분석 .....	36
<b>III. 연구결과</b>	
1. 사이버섹스 중독집단과 비중독집단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	38
2. 사이버섹스 중독의 이용실태 .....	40
3. 사이버섹스 중독의 태도 및 관계에 미치는 영향 .....	43

4. 사이버섹스 중독집단과 비중독집단의 자기통제의 차이 .....	56
5. 사이버섹스 중독집단과 비중독집단의 우울의 차이 .....	56
6. 사이버섹스 중독집단과 비중독집단의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차이.....	57
7. 각 변인들이 사이버섹스 중독에 미치는 영향 .....	58

<b>IV. 논의 및 제언</b> .....	62
--------------------------	----

**참 고 문 헌**

**ABSTRACT**

**부 록**

## 표 목 차

<표 1> 사이버섹스 중독집단과 비중독집단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39
<표 2> 사이버섹스 중독의 이용실태	41
<표 3> 사이버섹스 중독의 이용시간	42
<표 4> 사이버섹스 중독의 접속동기	43
<표 5> 사이버섹스 중독의 접속동기 (odds ratio)	45
<표 6> 현실에서 하지 못한 섹스의 두 집단의 비교	45
<표 7> 사이버섹스 중독의 직장에서의 접속동기	46
<표 8> 사이버섹스 중독의 직장에서의 접속동기 (odds ratio)	47
<표 9> 과거 통제어려움을 겪는 항목	49
<표 10> 과거 통제어려움을 겪는 항목 (odds ratio)	49
<표 11> 과거 통제어려움에 대한 중독정도의 차이	50
<표 12> 현재 통제어려움을 겪는 항목	51
<표 13> 현재 통제어려움을 겪는 항목 (odds ratio)	51
<표 14> 현재 통제어려움에 대한 중독 정도의 차이	52
<표 15> 사이버섹스 중독·비중독집단의 관계상태 차이	53
<표 16> 사이버섹스 중독·비중독집단의 성생활 만족의 차이	54
<표 17> 사이버섹스 중독으로 인한 결혼생활의 어려움	55
<표 18> 사이버섹스 중독·비중독집단의 자기통제의 차이	56
<표 19> 사이버섹스 중독·비중독집단의 우울의 차이	57
<표 20> 사이버섹스 중독·비중독집단의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차이	58
<표 21> 각 변인들과 사이버섹스 중독과의 상관	59
<표 22> 사이버섹스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회귀분석결과	61

# I. 서 론

##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세계최고 수준의 인터넷 보급률을 자랑하는 우리나라 통신 인프라의 구축은 인터넷 섹스산업의 빠른 성장을 가져왔다. 정보통신의 발달은 정액제 요금으로 인터넷을 무한정 쓸 수 있는 기회를 통해, 직업적인 인터넷 사용자 뿐 아니라 일반 가정에서 주부와 학생, 청소년과 아동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를 접하고, 학습하며,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상호교류의 장을 열어놓았다. 이러한 발달은 일반 사용자들 뿐 아니라, 이익 창출의 소재를 찾는 이들에게 사람들은 쉽게 접하지 못했지만, 잠재적인 욕구로 남아있는 섹스라는 요소를 인터넷과 결합시켜 폭발적인 인터넷의 섹스산업을 만드는 계기를 마련했다.

인터넷이라는 가상공간은 현실세계에서는 어려운 익명성(anonymity)과 편리성(convenience)을 제공하며, 현실의 탈출과 대체(escape or altered state of reality)를 가능케하는 속성이 있다(이칭찬, 2001; 김 민, 2003에서 재인용). 이러한 인터넷의 속성으로 인터넷 섹스를 하는 사람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2000년 6월 한 달 동안에만 국내에서 50만 명 이상이 접속한 포르노 사이트는 13개이고, 이중 3개의 사이트는 100만 명 이상 접속할 정도로 성장했다(정철영, 2000). Sprenger(1999)는 인터넷에서 사용하는 전체금액의 70%가 사이버섹스를 이용하는데 사용된다고 평가했다.

사이버섹스 중독은 인터넷에서 성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목적으로 성과 관련된 내용을 찾기 위해 성인대화방이나 사이트를 집중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다(Young, 1998a). 즉, 지속적 혹은 충동적으로 몰입하여 인터넷 음란

물을 자주 접하는 것이다. 인터넷 음란물이란, 음란 동영상이나 음란 사진, 음란 소설 등과 음란 채팅 등 인터넷 상에서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음란물을 말한다. 사이버섹스 중독은 Young이 제시한 5가지 인터넷 중독의 하위 유형<sup>1)</sup>에 속하며, 인터넷 중독자의 20% 이상이 사이버섹스 중독 증세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Young, 1998a).

최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현재 국내 인터넷 사용인구 5백만 명 중 75만 명이 음란사이트에 중독되었고, 이 가운데 중·고등학생이 10만명 정도로 추산된다고 한다(미디어 운동본부, 2000). 현재 단순검색만으로 접속 가능한 국내외 음란사이트가 35만개이고, 하루 신규 음란사이트 개설수가 1000개 이상 만들어지고 있는 현실이다(한국일보, 2001. 3)

미국의 사이버섹스 중독 대책위원회(National Council on Sexual Addiction and Compulsivity : NCSAC)는 2000년 5월 사이버섹스 보고서를 통해 미국의 인터넷 사용자 중 약 2백만명이 사이버섹스 중독증을 갖고 있으며, 이들은 1주일에 평균 15-25시간 동안 음란물사이트를 전전하면서 포르노를 즐기거나 모르는 상대와 채팅으로 음란대화를 나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직장을 포기하거나 배우자와 이혼하는 등 사이버섹스가 마약에 버금가는 신종 사회병리현상이 되고 있다고 NCSAC는 밝혔다. 또 이들 사이버섹스 중독자들 중에는 독립적인 사무환경을 갖고 있는 성직자, 교수, 변호사 등의 전문직 군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중앙일보, 2000. 6. 1).

우리나라의 경우 10-30대 인터넷 이용자 2,261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연구에서 조사대상자의 15%가 성적 욕구를 음란 사이트 및 음란 채팅 등을 통해 해결하려하고, 이중 5%는 사이버섹스가 현실로까지 이어지는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심영희, 2001).

---

1) 인터넷 중독의 하위유형은 사이버섹스 중독, 가상관계 중독, 충동적 인터넷 사용, 정보과부하, 컴퓨터 중독의 5가지로 분류한다.

국외의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Cooper는 9,265명의 인터넷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사이버섹스에 관한 기초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대상자 중 8.5%가 사이버섹스에 중독된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사이버섹스 중독자들은 성적 추구를 목적으로 매주 적어도 11시간 정도를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은 대개 자신의 현 문제를 부인하고, 온라인 성행동을 줄이기 위해 계속적인 노력을 해왔으며, 성적 부진 또는 업무성과 저하, 대인관계의 어려움, 직업상실, 관계상실, 성적 문제로 인한 소송 등 여러 가지 부정적 결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온라인 성행동을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chneider & Weiss, 2001; 주석진, 2002).

Schneider(2000)는 사이버섹스 중독자 남성 45명, 여성 10명을 대상으로 질적 연구를 실시했는데 응답자의 90%이상이 온라인 성행동으로 인해 현실생활에서 불행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하였다. 또한 남성이 여성보다 음란물을 많이 접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심각한 중독자의 경우 여성 또한 음란물을 많이 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터넷 음란물의 접촉 실태와 영향을 알아보는 연구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조아미, 2000; 김혜원, 2001; 이해경, 2002a, 2002b; 김민, 2002a, 2002b; 남영옥·이상준, 2002 재인용). 또한, 최근에는 청소년의 사이버섹스 중독에 관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김민(2002)연구에서, 청소년의 6%정도가 사이버섹스에 중독된 것으로 나타났고, 이 중 1.5%는 심각한 중중 중독 상태로 인터넷 중중 중독자 1.9%와 유사한 비율을 보였다. 인터넷 중독자들 중에서 사이버섹스 중독자들이 많았고, 사이버섹스 중독자 역시 어떤 수준으로든 인터넷 중독 경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중독의 하위 유형으로서 사이버섹스 중독 현상이 기본적으로 인터넷 중독과 밀접한 상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남영옥·이상준, 2002). 이상준(2003)은 청소년의 7.8%가 사이버섹스에 중독된 것으로 보고했다. 이 연구에서 자기 통제력이 낮을수록, 부부관계가 나쁠

수록, 가족지지와 친구지지가 낮을수록 사이버섹스에 더 많이 중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영옥(2002)은 청소년의 2%가 심각한 중증 중독 상태에 있고, 약 47% 초기중독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고했다. 이 연구에서 우울과 충동성이 클수록,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부모의 양육행동이 나쁠수록, 학교생활 만족도가 낮을수록 인터넷 중독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사이버섹스 중독에 관한 선행 연구들은 성인보다는 청소년에게 집중되어 있어 최근에 사이버섹스 중독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포괄적으로 알기 어렵다. 이에 아동과 청소년만이 아닌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매우 필요한 실정이다.

성인의 사이버섹스 중독 연구가 필요한 이유는, 성인 개인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과 가정의 문제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성인 사이버섹스 중독자들은 직장에서 해고 혹은 포기, 배우자 또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대인관계와 성관계에서의 갈등, 별거, 이혼, 가족간의 불화, 대인관계의 갈등, 재정적 문제 등을 겪고 있다(Young, 2001)

또한, 사이버섹스 중독자는 비중독자와 비교해볼 때, 배우자 혹은 상대방과의 성관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chneider(2000)는 사이버섹스 중독자들의 34%는 배우자 혹은 상대방과의 섹스 감소가 나타났다고 보고했다. 중독자들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대인관계의 문제나 불만족한 부분들을 회피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들은 갈등을 해결하거나 문제에 대처하는 방법이 미숙했다(Cooper, 2001a).

사이버섹스 중독집단은 비중독집단과 비교해볼 때 중독자와 비중독자간의 접속동기, 과거와 현재의 통제의 어려움,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서 차이가 난다. 먼저 접속동기를 살펴보면, 중독집단은 비중독집단과 비교해 볼 때 스트레스 해소를 목적으로, 판타지(공상)를 탐색하기 위하여 사이버섹스를 하며 비중독 집단은 교육적 목적과 성적 자료구입을 목적으로 사이버섹스를 한다.

Young(2001)은 낮은 자존감, 왜곡된 신체이미지, 어릴적 성적 학대, 우울, 분노, 강박장애 혹은 종교적으로 매우 엄격한 집안 혹은 중독 과거력이 있는 집안에 속한 사람들이 사이버섹스 중독의 고위험군이라고 밝혔다. 또한 알콜, 담배, 약물, 도박, 음식, 섹스에 대한 통제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사이버섹스에 중독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보았다. 특히, 섹스의 통제 어려움을 겪었거나 겪고 있는 사람들은 사이버섹스를 했을 때 다른 사람들보다 중독적 성향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제안했다.

사이버섹스 중독은 이성 관계에서 상대방과의 섹스 활동을 감소시키며, 연애편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했다. 또한, 관계상태 (relationship status)에서는 미혼이면서 이성상대가 있는 집단에서 다른 집단(기혼, 기혼이며 연인있음, 미혼이며 이성상대 없음)보다 중독이 될 경향이 높다고 밝혔다(Cooper, 2001a).

사이버섹스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심리적 변인으로 자기 통제, 우울,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있다. 자기 통제력은 인터넷 중독의 예측변인으로 연구되고 있다. Young(1996)은 낮은 자기 통제력이 인터넷을 중독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사이버섹스 중독의 고위험요소라고 보고했다(Young, 2001). 자기 통제력은 인터넷 중독의 예측 변인인 동시에 하위 영역인 사이버섹스의 영향요인으로 볼 수 있다. 이상준(2003)은 사이버섹스 중독 청소년 연구에서 자기 통제력이 낮을수록 사이버섹스에 중독되는 것으로 보고했다.

Cooper(2001a)는 사이버섹스 중독자 유형으로 스트레스 반응 타입과 우울 타입의 이용자를 고위험군으로 분류했다. 스트레스 반응 타입은 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때에 우선적으로 사이버섹스에 몰입한다. 이들은 스트레스 상황을 벗어나거나 회피하는 방법으로 사이버섹스를 이용한다. 우울한 타입은 사이버섹스를 이용함으로써 감정의 통제와 표현의 기회를 얻고, 우울하고 불쾌하고 침체된 기분을 떨쳐버린다. 이들은 사이버섹스를 이용하는 차원을 넘어 중독적 차원으로 진행될 경향이 높은 사람들이다. 앞에서 제시한 세가

지 변인은 사이버섹스 중독의 영향변인으로 예측되지만, 아직 각 변인과 사이버섹스 중독간의 경험적 연구는 진행되지 않았다. 따라서 성인 사이버섹스 중독과 각 변인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연구는 매우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사이버섹스 중독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터넷 음란물에 대해 포괄적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그 내용도 대부분 이용상태와 이용현황, 음란물과 청소년과의 관계와 영향요인 등에 국한되어 연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성인을 대상으로 사이버섹스 전반에 대한 태도 및 영향, 심리적 변인에 관한 연구들이 절실히 요구되며, 영향요인을 밝혀서 삶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중독자 개인의 임상적 개입뿐 아니라, 중독자의 단절된 가족관계에 대한 사회적 개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는 성인 사이버섹스 중독에 대한 연구를 통해 중독집단과 비중독 집단을 구분 짓는 요인을 찾아냄으로서 치료적 개입을 모색하는데 도움을 주고, 사이버섹스 중독자들을 위한 효과적인 교육이나 치료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2. 이론적 배경

### 1) 사이버섹스 중독의 이해

#### (1) 사이버섹스 중독의 개념

Young(1999)에 따르면 사이버섹스 중독은 인터넷 중독의 전형적인 다섯 가지 하위유형 중 하나로 사이버섹스를 위해 성인대화방이나 사이트를 충동적, 강박적으로 사용하는 행위이다. 사이버섹스 중독은 인터넷 중독의 어떤 특별한 경향만을 의미하진 않는다. 사이버섹스 중독은 다른 하위유형과 같이 컴퓨터와 인터넷에 의존하고 몰입하고자 하는 경향을 공통으로 갖는 중독 현상이다. Young 역시 기본적으로 인터넷 중독 현상에 있어서 인터넷 중독의 각 하위유형들이 분명한 경계선을 갖고 독립적으로 보이는 중독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Young은 인터넷 중독이란 하위유형들이 복합적으로 얽혀진 중독 현상이며 이러한 하위유형의 특성들이 전체적인 인터넷 중독 경향을 유발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김 민, 2003). 오히려 인터넷 중독의 분명한 원인 중 하나로 사이버섹스를 말한다. 즉, Young은 인터넷 중독이란 새로운 정보를 찾기 위해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성적인 욕구 충족과 사회적 만족감을 얻기 위해서이며, 특히 성적인 만족과 사회적 지지, 현실에서의 자신과는 전혀 다른 인격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찾기 위해서 인터넷에 의존하려는 성향을 갖는다고 보았다(한겨레신문, 1997.8 ; 김 민, 2003에서 재인용). 이와 같이, 인터넷 중독과 사이버섹스 중독은 유사한 경향성을 가졌다고 볼 수 있다. ACE 모델은 인터넷 중독의 원인이며서 사이버섹스 이용자들을 중독에 이르는 요인이기도 하다. Young은 가상공간이 사용자에게 현실에서는 어려운 익명성(anonymity)과 편리성(convenience)을 제공하며, 현실의 탈출과 대체(escape or altered state of reality)를 가능케 하기 때문에

사이버섹스가 중독·강화된다고 말했다(이칭찬, 2001; 김민, 2003에서 재인용). Young(2002)이 사이버섹스 중독에 적용하는 ACE모델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이버섹스 중독은 익명성(anonymity)을 가지고 있다. 과거 일상적인 성적 욕망을 해결하는 방식은 일정한 요건이 있어야 했다. 즉, 친밀성을 갖춘 대인 관계에서만 성적 욕망을 나뉘었다. 친밀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 돈을 주고 하는 섹스를 매춘이라고 칭했으며, 친밀성을 회피하는 성행위를 성도착으로 정의했다. 온라인에서의 성적 행위의 대부분은 익명성을 전제 조건으로 한다. 익명성은 자유를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자유에 익숙해지면 결국 건강한 성행위의 토대인 친밀성은 사라지게 된다.

둘째, 인터넷에서의 섹스는 편리성(convenience)을 가지고 있다. 인터넷이라는 가상공간에는 수십만의 음란 사이트가 존재하고, 의도적인 접촉이 아니어도 쉽게 포르노에 접할 수 있다. 또한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음란 대화에 참여하고, 실제 성관계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편리성은 성적 강박 행위를 더 부추기게 되고 중독적 성격을 갖게 한다.

마지막으로 인터넷에서의 섹스는 현실탈출(escape)이라는 요소를 가지고 있다. 환상적인 성적 만족에 반복적으로 집착하게 된 사이버섹스 중독자들은 사이버 파트너로 인해 마르지 않는 샘처럼 제공되는 인터넷에 몰입하여 힘든 일상생활과 결별하게 된다. 인터넷 숲속에서 익명의 파트너를 밤새도록 바꿔가면서 때로는 자위행위를 하고 때로는 강간을 하고, 때로는 변태적 성행위를 하면서 현실세계에서 누려보지 못한 쾌감과 긴장의 해소를 경험한다. 그리고, 그 쾌감과 긴장의 해소는 사이버섹스에서만 가능하다고 믿게 된다. 결국, 사이버섹스 중독은 점차 개인의 성적 욕망을 왜곡시켜 현실에서의 인간관계를 심각하게 손상시킨다고 주장한다.

Cooper와 Sportolari(1997)은 ‘Triple A Engine’을 제안했다. ‘Triple A Engine’은 인터넷의 매력을 설명하는 3가지 특성에 중점을 두었는데 접근

가능성(accessibility), 익명성(anonymity), 이용가능성(affordability)이다. Griffiths(2000)는 편리성(convenience), 현실도피(escape), 사회적 수용성(social acceptability)을 주장했다. Delmonico, Griffin & Moriarty(2001)는 사이버섹스 중독으로 불리는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단어를 사용했다: 흥분시키는(intoxicating), 고립시키는(isolating), 필수적인(Integral), 비용이 안드는(inexpensive), 인상적인(imposing) 그리고 쌍방향의(interactive). 이러한 용어들은 모두 인터넷의 속성을 규정하는 단어들이며, 이러한 속성들이 복합되었을 때 사용자들을 강박적이고 문제성있는 유형으로 빠르게 변화시킨다(Cooper, 2004)

사이버섹스 중독으로 진단하기 위해서 기준이 필요하다. 다음은 Young과 Carnes의 사이버섹스 진단기준이다.

#### Young의 사이버섹스 중독의 징후

- (1) 사이버섹스를 위해 상습적으로 대화방과 비공개 통신에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
- (2) 사이버섹스 파트너를 찾기 위해 인터넷에 몰두해 있음을 느낀다.
- (3) 실생활에서는 없는 성적 환상에 빠져들기 위해 익명의 통신을 빈번하게 이용한다.
- (4) 다음에 컴퓨터에 접속해도 성적인 자극과 희열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5) 사이버섹스에서 폰섹스나 실제 성접촉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 (6) 주변의 가까운 사람들에게 가상공간에서의 일들을 숨긴다.
- (7) 인터넷 사용 사실 자체에 죄의식을 갖거나 부끄러움을 느낀다.
- (8) 처음에는 우연히 사이버섹스에 의한 성적 자극을 받았으나 지금은

능동적으로 추구한다.

- (9) 컴퓨터상에서 음란 대화를 하며 자위행위를 한다.
- (10) 실생활의 섹스 파트너에는 무관심하고 사이버섹스를 성적 만족의 주된 형태로 선호한다.

Young은 위의 증상 중 한 가지라도 해당되면 사이버섹스 중독을 일단 의 심해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 Carnes의 병적 온라인 성행동 기준

- (1) 인터넷을 통해 지나치게 성적인 몰두를 한다.
  - (2) 사용의도보다 더 빈번히, 더 자주, 그리고 더 오랫동안 사용한다.
  - (3) 중단하거나 제한하고자 시도했던 노력이 반복적인 실패를 거듭한다.
  - (4) 사이버섹스 사용을 그만두거나 제한하는 중에 과민 반응 또는 안절 부절한 현상이 나타난다.
  - (5) 문제 또는 감정적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탈출구로서 사이버섹스를 사용한다.
  - (6) 조금 더 성적 쾌감을 얻기 위해 다시 온라인으로 돌아가고자 한다.
  - (7) 사이버섹스에 몰두하는 것을 숨기기 위해 가족 구성원들과 치료자, 타인들에게 거짓말을 한다.
  - (8) 아동 포르노그래피를 다운 받거나 보내는 등의 불법 행동을 한다.
  - (9) 온라인 성행동으로 인해 주요 관계, 직업, 교육/경력 기회 상실한다.
  - (10) 사이버섹스 행동에 몰두한 결과로 재정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 (Carnes. P., 2001; 김현수, 2002; 주석진, 2002에서 재인용)

이와 같은 진단기준을 기초하여 Young(2001a)은 중독과 장애 정도에 따

라 문제 혹은 현실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20가지문항의 사이버섹스 중독 검사지(The Cybersexual Addiction Index: CAI)를 개발했다. 본 연구에서는 김 민(2003)이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번안한 사이버섹스 중독 검사지를 사용하여 사이버섹스 중독 집단과 비중독 집단을 분류했다. [부록참조]

사이버섹스 중독에 대한 여러 연구들에서 Young과 Cooper는 용어의 정의 사용에 있어서 차이를 나타낸다. 연구의 이해를 위하여 선행연구에 사용된 각 학자들이 제시하는 용어의 정의를 알아보고, 본 연구에서 정의하는 사이버섹스 중독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살펴보겠다. 먼저 Cooper(2004)의 연구에서 제시하는 사이버섹스 중독과 관련된 용어의 정의이다.

온라인 성행동(online sexual activity: OSA)은 성적 관심을 표현하기 위해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행동들은 기분전환, 탐험, 오락, 성적 관심에 대한 지지, 교육적인 목적으로 성적 자료를 사거나 성적 파트너를 찾는 등의 행위를 말한다.

사이버섹스(cybersex)는 온라인 성문제(OSA)의 하위범주이며 성적 만족을 위해서 인터넷이나 다른 미디어를 사용하는 행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는 성적 이메일을 교환하고, 성적인 채팅을 하고, 성적공상(sexual fantasy)을 나누면서 서로 자위행위를 하는 동안 성인 사진들을 보는 것을 포함한다. 온라인 성문제(online sexual problem: OSP)는 온라인 성행동(OSA)에 몰입할 때 발생하는 모든 범위의 문제들을 말한다. 이는 개인적인 문제 뿐 아니라 상호 관계에 있어서 재정적으로, 법적으로, 직업적으로 온라인 성행위(OSA) 때문에 야기되는 부정적인 영향들을 말한다. 이러한 문제는 일회성 혹은 지속적인 몰입의 패턴으로부터 발생하고, 죄책감을 느끼는 부분에서부터 직업 혹은 관계 상실의 범위를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성강박(online sexual compulsivity: OSC)은 온라인 성문제(OSP)의 하위유

형으로 온라인 성행동(OSA)를 함으로써 일, 사회적, 여가적인 면에서 삶에 부정적 문제를 경험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또한, 이들은 부정적인 결과를 최소화하거나 행동을 조절하는 일에 있어서 통제력을 상실했음을 의미한다 (Cooper, 2004).

다음으로 Young(1998)의 연구에서 제시하는 사이버섹스 중독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사이버섹스 중독(cybersex addiction)은 인터넷상에서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목적으로 성관 관련된 내용을 찾기 위해 성인대화방이나 사이트를 집중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즉, 지속적 혹은 충동적으로 몰입하여 인터넷 음란물을 자주 접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Young이 제안한 ‘사이버섹스 중독’을 사용하며, 사이버섹스 중독과 관련한 용어의 조작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사이버섹스는 성적 관심이나 성적 욕구를 표출하기 위하여 인터넷을 사용하며, 일회성 혹은 지속적으로 성적 자료를 보고, 성적 이메일을 교환하고, 성적 채팅을 하거나, 성적 공상(sexual fantasy)을 나누면서 서로 자위행위를 하는 등의 일체 행동으로 정의한다. 이러한 행동의 목적에 있어서, 기분전환, 탐험, 오락, 성적 관심에 대한 지지, 교육적 목적, 성적 욕구 충족 등을 포함한다. 또한, 병리적인 현상의 경험 없이 사이버섹스에 몰입하는 사람들을 사이버섹스 이용자로 정의한다. 사이버섹스 중독은 사이버섹스로 인해 개인의 삶에 문제뿐 아니라 가정에서, 혹은 사회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경험하는 일체의 현상을 말하며, 이러한 온라인 성강박(OSC) 현상을 보이는 이들을 사이버섹스 중독자로 정의한다.

## (2) 사이버섹스의 실태

최근 성인사이트 일부 업체에서는 e-mail 주소만을 전문으로 수집하는 프로그램이나 대행업체를 통해서 남녀가 성관계를 맺는 동영상이나 사진 등의 자극적인 그림과 사이트 소개를 담은 광고메일을 무차별로 발송하고 있다. 성인 사이트는 나체 사진에서부터 변태행위나 아동 포르노와 같은 불법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어떤 경우에는 이러한 사진을 클릭하며 바로 해당 사이트에 회원 등록이 되도록 연결해놓았다. 대개 성인사이트들은 사람들을 유인하기 위한 몇 가지 자료를 무료로 제공한 후 더욱 자극적이고 야한 사진은 신용카드 번호와 함께 정식 회원으로 등록한 후에야 볼 수 있게 했다. 일부 악덕업체에서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신용카드에서 돈이 빠져나가도록 프로그램을 설치해놓기도 한다(한국 정보문화센터, 2002). 또 거의 모든 사이트가 게스트 자격으로 무료로 방문 할 수 있어 18세 미만의 아동과 청소년이라도 언제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외국에서는 개인이 포르노사이트의 단순한 소비자에서 벗어나 직접적인 생산자, 운영자(와레즈 포함)가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성인 사이트 제작 매뉴얼도 출간되어 널리 유포되고 있는 실정이다(A, M. D., Inc., 2000; 김 민, 2003에서 재인용). 그러나 이들 사이트는 서버를 외국에 두는 경우가 많아 국내법으로 제재하기 힘들다.

성인사이트에서는 채팅방을 통해 음란대화도 성행하고 있다. 현재 채팅방에서는 글로 음란한 대화를 나누는 컴섹(음란채팅)이 있으며, 실제로 성관계를 맺기 위해 상대를 찾는 번섹(번개섹스)이 이루어지고 있다. 단순히 글로만 음란한 대화를 나누는데 그치지 않고 컴퓨터에 부착된 디지털 카메라를 통해 성행위 장면을 서로 보여주면서 사이버섹스를 하는 화상 채팅도 성행하고 있다(한국 정보문화센터, 2002). 이러한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지는 섹스 행위들은 오프라인에서 시도해보기도 어려운 음란한 언행들로 이루어지고 있다.

### (3) 사이버섹스 중독의 단계

여러 연구들에서 사이버 관계는 이메일에서 시작하여 사이버 공간에서 섹스를 하고 실제로 만나 성관계를 맺게 되는 점진적인 발달단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Young은 사이버섹스 중독이 연속적이고 상호 의존적인 다섯 단계에 걸쳐서 발생한다고 보았다. 그 과정은 점진적인 남용 또는 갑작스럽게 남용했을 때, 며칠 또는 몇 시간 사이버섹스를 탐닉한 후에도 나타날 수 있다고 보았다.

첫 번째 단계는 발견단계(discovery)로 이는 중독의 처음 단계로서 개방적인 사이버 공간에서 음란물을 발견하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단계에 해당된다. 발견단계에서 남성들은 우연히 포르노사이트를 발견하고 여성들은 채팅방에 들어가고 사이버섹스를 함께하기 위해 유혹하는 남성들을 만난다. 사람들은 좀 더 성적 자극에 관심을 보이며, 성적 행동의 전율을 발견한다.

두 번째 단계는 실험단계(experimentation)로 전자매체의 익명성에 의해 온라인 사용자들은 비밀스럽게 두려움 없이 음란물을 탐색하기 시작한다. 이 단계에서 사용자들은 흥분고취를 위한 색다른 채팅방이나 사이트를 찾다가 결과적으로 가장 에로틱한 자극을 주는 특별한 채팅방이나 포르노사이트에 접속하는 경향으로 발전한다. 또한 이 단계에서 사용자들은 그들의 가상 경험에 대해 스스로가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다.

세 번째 단계는 습관단계(habituation)로 이 단계에서는 술에 내성이 생기는 것처럼 반복된 노출로 사용자들이 처음에 느꼈던 강한 자극이 사라지면서 좀 더 자극적인 만족을 필요로 한다. 사용자들은 더욱 외설적이고 음란한 포르노그래피를 다운받고, 점진적으로 섹스 웹캠에 흥분하고, 좀 더 대담하고 솔직한 판타지를 주고받는다.

네 번째 단계는 강박단계(compulsivity)로 습관이 강박 관념으로 발전한다. 이 단계에서 삶은 통제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고, 강박적 행동으로 인해

대인관계와 직업 등이 위태롭게 된다. 사이버섹스 중독의 경험은 긴장을 감소시키는 상태로 의식을 변화시키며, 중독은 복잡한 삶의 문제와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써 컴퓨터를 사용하게 만든다. 이 단계에서, 스트레스가 증가하는 순간에 무의식적으로 술을 찾게 되거나 혹은 폭직자들이 긴장의 순간에 음식을 과도하게 먹게 되는 것처럼, 사이버섹스 중독의 강박적 행동은 긴장과 불안의 고통스런 상태에 많이 처할수록 증가하게 된다. 사이버섹스 중독은 온라인 접속 상태를 숨기려할 때, 컴퓨터에 몰입하고 있을 때, 중독적 패턴이 나타난다. 그리고 잠재적인 위험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계속적으로 중독 행동에 몰입한다. 스트레스 받는 생활이 계속 될수록, 현실도피의 방편으로 사이버섹스에 의존한다. 이 시점에서, 사이버섹스는 더 이상 자발적인 행동이 아니라, 의무로 무의식적으로 행해지는 것처럼 보인다.

다섯 번째 단계는 절망단계(hopelessness)이다. 이 단계에서는 중독 때문에 삶이 밑바닥에 향한 것처럼 극도로 손상됐음을 깨닫는다. 중독자들이 사이버섹스로 인해 삶을 더 이상 통제할 수 없을 때 절망감은 발전한다. 중독자는 사이버섹스를 중단하기 위해 노력한다. 인터넷 서비스를 해지하고, 모뎀을 끊고, 소프트웨어를 걸러내는 프로그램을 설치한다. 중독자들은 사이버섹스의 중단상태를 유지하려고 고군분투하면서 절박감을 경험한다. 그러나, 한 번의 클릭은 오래된 행동 패턴인 사이버섹스 중독의 고리로 다시 몰입하게 한다. 이러한 절망단계에서 중독자들은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지배하기 시작한다. 중독자들은 자신에 대한 부정적 생각에 압도당하는 느낌을 경험하며 사이버섹스 중단의 어려움을 과장하면서 올바른 행동으로 향할 수 있는 방법을 최소화시킨다. 이런 점에서 중단의 의지보다는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쪽으로 강력한 힘을 갖게 된다(Young, 2001).

#### (4) 사이버섹스 중독의 특성

사람들이 온라인 성행동(OSA)를 이용하는 방법에 따라 궁극적으로 삶을 향상시키는지 혹은 심각한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는지 결정된다.

Cooper, Scherer, Boies와 Gordon(1999)은 일주일에 1시간미만 온라인 성행동을 하는 46.6%를 포함하여 일주일에 11시간미만 사용하는 남녀 전체 이용자의 91.7%는 자신의 온라인 성행동에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이들은 자신의 온라인 성행동에 대한 부끄러움이나 죄책감을 느끼지 않으며, 온라인 성행동으로 인해 삶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다. 그러나, 응답자의 17%는 온라인 성행동으로 심각한 문제의 징후가 나타나며 이중 8.3%는 온라인 성강박으로 일주일에 11시간 이상 온라인 성행동을 하며 그 결과 고통과 삶의 어려움을 경험했다. 온라인 성행동을 하는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삶에 문제를 경험하지 않으며 오히려 궁극적으로는 만족감과 더불어 긍정적 영향을 받고 있으나, 소수의 몇몇은 온라인 성행동으로 삶의 많은 영역에서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다(Cooper, 2004).

Cooper, Putnam, Planchon and Boies(1999)은 이러한 동일한 현상에 대한 결과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모든 사이버섹스 이용자는 동일한 특성을 갖지 않으며, 이들은 기분전환형, 성적 강박형, 고위험군의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Cooper, 2004). 첫째, 기분전환형은 오락적, 교육적, 실험적인 다양한 이유로 온라인 성행동에 몰입한다. 이들은 온라인 성행동으로 삶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 중 몇몇은 사이버섹스에 지나치게 몰입하지만, 사용시간이나 정도에 있어서 합리적인 선을 유지한다. 또한 이들은 지속적으로 사이버섹스를 하다가도 지루해져서 이런 행위들을 즐기거나 멈춘다(Leiblum, 1997). 둘째, 성적 강박형은 성문제로 과거나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처럼 단순히 성적 관심을 추구하는 차원에서 인터넷에서 섹스를 접하는데 위험하게도 그들의 온라인 성행동은 기존의 성문제들을 상승시키고, 현존해있던 분명하

고 중대한 결과를 야기한다(Cooper, 2004). 이로 인해 삶에 다양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데, 개인적인 차원(eg., 재정적, 법적, 직업적, 안전성)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문제를 일으킨다. 또한 죄책감이나 부끄러움을 느낀다. 마지막 유형은 과거 성적 강박이 없는 유형으로 고위험군으로 분류한다. 이들은 인터넷이 없었다면 성적 강박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을 사람들이다. 이들은 성적 강박의 기질이나 취약성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으나, Triple A Engine<sup>2)</sup>에 직면했을 때 이겨낼 수 있는 충분한 내적 힘과 충동조절능력이 있다(Cooper, 2001a). 이 유형은 스트레스-반응 타입과 우울타입으로 나뉜다. 먼저 스트레스-반응 타입은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동안 온라인 성행동에 몰입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발생한 불편한 감정을 대처하는 수단으로, 순간의 회피와 기분전환의 방편으로 온라인 성행동을 이용한다. Black, Kehr, Flumerfelt and Schlosser(1997)은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동안 문제를 일으키는 성적 행동이 증가한다고 보고했다. 다음으로 우울한 타입은 일반적으로 우울하고, 의기소침하고 화를 경험하는 고위험군이다. 이들은 온라인 성행동을 사용함으로써 만성적인 감정의 어려움 혹은 의기소침, 우울 등에서 벗어나려고 한다. 이들의 성적 행동의 표출은 감정적인 강한 반응을 일으키고, 불쾌감 혹은 불안감을 떨치는 수단이 된다(Cooper, 2004).

Cooper(2004)는 사이버섹스 중독이 사용자의 유형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 것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3가지 요인이 함께 결합될 때 삶에 어려움을 일으킨다고 보았다. 성행동은 일반적인 3가지 - 강박관념(obsession), 강박행동(compulsion), 결과(consequences)- 요인이 있을 때 문제가 발생한다(Schneider, 1994). 그 자체적인 한 요인만으로는 온라인 섹스가 강박적 문제를 일으키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 특히, 일상생활에 문제를 갖고 있지 않는 대부분의 일반인들에게 있어서 더욱 그렇다. 예를 들어, 자위행위는

---

2) 접근가능성(accessibility), 익명성(anonymity), 이용가능성(affordability)

안전하고 건강하며 성적 표현의 유용한 수단이다. 그러나, 특정한 생각(e.g., 내 성적 기호는 나쁜 것이며 자위행위가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지 않기 원한다), 행동(e.g., 부적절한 장소에서 자위행위를 하는 것), 그리고 좋지 않은 결과(e.g., 그/그녀 대신에 내 스스로 욕구를 해결하는 일을 멈추지 않으면, 내 배우자가 떠날것이다)가 결합될 때, 자위행위는 성적으로 강박적 패턴의 한 부분이 될 수 있다.

사이버섹스는 이성상대가 있거나 기혼의 경우 이성상대자 혹은 배우자에게 외도의 개념으로 생각될 수 있다. Young(2000)은 이성 관계 혹은 결혼 관계의 측면에서 사이버섹스와 조금 다른 양상 나타나는 사이버연애(cyberaffair)와 가상외도(virtual adultery)의 개념을 설명했다.

사이버연애는 채팅방, 상호교류 게임, 혹은 뉴스그룹과 같은 가상모임에서 발생한 전자 대화, 온라인 모임을 통해 시작된 로맨틱 또는 성적 관계로 정의된다. 사이버연애는 어디에서나 매일매일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으며, 이용자들은 전자 모임의 속성상 현실세계처럼 경계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감정 표현에 있어서 진실을 털어놓으며 보다 열린 마음으로 정직하게 감정을 표현한다. 그 결과 오프라인에서 몇 달 혹은 몇 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친숙한 감정을 온라인에서 몇 주 혹은 몇 일안에 얻게 된다. 신뢰감, 친밀함과 수용적인 느낌은 온라인 사용자들에게 편안함과 절친한 친구 같은 관계를 갖게 한다(Cooper & Spertolari, 1997; Young, 1997).

이런 관계들은 쉽게 에로틱한 대화방을 찾고, 오프라인에서의 만남으로 이어진다. 사이버연애의 관계로 맺은 친밀성은 성적 자극을 추구하는 사이버섹스로 연결된다(Young, 2000). 가상외도는 컴퓨터 이용시간의 증가로 인터넷 중독처럼 보인다. 그러나, 가상 외도를 하는 사람들은 새롭게 알게 된 연인과 채팅하고 만나는 수단으로써 인터넷을 이용하는 강박적 행동이 나타나기 때문에 사이버 연인에 중독됐다고 볼 수 있다(Young, 2001).

사이버연애와 사이버 성적인 만남은 인터넷이 부부의 삶에 들어오기 전부

터 가지고 있던 문제가 표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관계 문제에 있어서 공통된 선행 문제들을 살펴보면, (a) 서투른 의사소통 기술, (b) 해소되지 않는 성적 불만족, (c) 양육방식의 차이, (d) 최근 가족과 친구들간의 관계의 변화 (e) 재정문제 그리고 (f) 서투른 갈등 해결 기술 등이다. 이런 문제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사이버연애에 몰입할 가능성이 높다. 그 이유는 사이버연인은 이성 관계나 결혼생활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도와주는 무조건적인 지지와 편안함을 주며(Young, 1998a), 현재 경험하는 문제의 해결의 어려움을 회피하고 기분전환의 수단이 된다. 인터넷의 성적 행동은 현실에서 상대방과의 성적 불만족이나 억눌린 화를 표출하는 도구가 된다(Young, 2000).

#### (5) 사이버섹스 중독의 결과

사이버섹스 중독은 앞에서 제시한 것처럼 개인의 삶에 있어서 재정적, 직업적, 사회적인 손상, 심리적 황폐화, 중독적 행동패턴으로 인한 변화뿐만 아니라, 이성상대가 있는 성인 남녀, 결혼을 한 남편, 주부, 그들의 아이들에게 까지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 특히, 이성상대가 있는 성인 남녀, 기혼자들은 중독으로 인해 관계의 단절, 별거, 이혼 등을 경험한다.

Schneider(2001)는 중독 남편, 아내 혹은 애인으로 인해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는 중독자의 이성상대 혹은 배우자를 대상으로 사이버섹스 중독이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다. 피험자는 24-57세이며, 여성이 91명 남성이 3명으로 개방적 질문지를 통해 결과를 얻었다.

이들은 배우자의 온라인 성행동으로 자존감의 상실뿐만 아니라 배신감, 거절감, 버림받음, 황폐화, 외로움, 수치스러움, 고립감, 굴욕감, 질투, 화의 감정을 경험하며 마음에 상처를 경험했으며 반복적인 고통의 주된 원인이 됐다. 이들은 사이버섹스 중독이 부부의 이혼과 별거의 주된 원인이며, 응답자의 22.3%가 별거, 이혼을 했으며 다른 사람들은 별거를 심각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의 68%중에서 한 사람 혹은 두 사람이 성생활에 흥미를 잃었다. 중독자의 52.1%, 그들의 배우자의 34%는 상대방과의 섹스에 흥미가 줄었다. 몇몇 부부는 몇 년 혹은 몇 달 동안 전혀 관계를 갖지 않은 것으로 응답했다. 배우자들은 자신을 온라인의 여성 혹은 남성, 그림과 비교하며 그들과 경쟁하는 것에 절망감을 느꼈다. 또한, 많은 배우자들이 사이버 연애를 실제 외도를 하는 것으로 믿고 있었고, 고통을 호소했다. 이러한 불행한 결과는 아이들에게도 나타났다.

아이들은 사이버포르노에 노출되며, 부모의 갈등과 다툼으로 고통을 받으며, 중독 부모는 컴퓨터에 몰입하고 다른 부모는 배우자의 사이버섹스 중독에 대해 집착하게 되어 아이들은 관심에서 멀어진다. 또한 부모의 이혼으로 혼란을 겪는다. 사이버섹스 중독자의 응답에서, 그들의 배우자는 중독 배우자로부터 지속적인 무시와 부인, 사이버섹스 중독행동의 발견과 충격, 문제 해결의 시도를 지속적으로 경험한다. 그러한 시도가 실패하고 더 이상 관계를 지속할 수 없음을 느낄 때 위기를 경험한다(Schneider, 2001).

이와 같이 사이버섹스 중독은 중독자 본인뿐만 아니라 그들의 배우자와 아이들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불행한 생활의 지속은 관계의 단절, 별거, 이혼에 이르러 가정파탄을 초래하기도 한다.

## 2) 사이버섹스 중독의 태도 및 영향

Cooper(2001b)는 online-offline의 성적태도와 행동에 관한 질문지를 이용하여 사이버섹스 중독에 대한 접속동기, 통제의 어려움을 겪는 부분(예, 섹스, 음식, 돈 등),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조사하였다. 먼저 사이버섹스 중독집단과 비중독집단의 접속 동기를 살펴보면, 중독집단 내에서는 기분전환(80.5%), 스트레스 해소(56.5%), 성적 판타지 탐색(43%), 교육적 목적(25.3%) 순으로 사이버섹스를 한다고 밝혔다. 비중독 집단은 기분전환

(81.6%)에서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으며, 교육적 목적(31.7%), 스트레스 해소(29.9%), 성적 판타지 탐색(29.9%)을 목적으로 사이버섹스를 한다고 나타났다. 접속동기에 대한 두 집단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사이버섹스 중독집단은 비중독집단보다 스트레스 해소를 위하여, 성적 판타지를 탐색하기 위하여 사이버섹스하며, 비중독 집단은 중독집단보다 교육적 목적과 성적인 자료 구입을 목적으로 사이버섹스를 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결과는 사이버섹스 중독집단이 스트레스 상황에 처했을 때, 상황에 대한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사이버섹스를 하며, 현실에서 하지 못하는 성적 판타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사이버섹스에 중독됨을 나타낸다. 앞에서 제시한 사이버섹스 중독자의 유형과 같은 맥락이다. 즉, 대다수의 비중독자들은 기분전환이나 교육적 목적으로 사이버섹스를 하는 기분 전환형에 속하며, 소수의 성적 강박을 보이는 중독자들은 스트레스 해소와 현실에서 하지 못한 성적 판타지 실현을 목적으로 사이버섹스를 하는 성적 강박형과 고위험군에 해당된다. 성적 환타지 실현을 목적으로 사이버섹스를 하는 내용을 조금 더 세분화하여 중독집단과 비중독집단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나는 현실에서 하지 못했던 섹스를 온라인에서 한다’의 문항에서 중독집단과 비중독 집단을 비교한 결과 유의미하게 큰 차이를 나타냈다. Cooper(2004)는 현실에서 하지 못했던 판타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사이버섹스에 접속하는 타입을 판타지 유형(fantasy type)으로 분류했다. 또한, 이들은 성적으로 강박적 성향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현실과 사이버공간이 분리된 성생활을 지속할 경우 친밀한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경고하고 있다.

다음으로 사이버섹스 중독집단과 비중독 집단에서 현재와 과거 통제어려움을 경험하는지를 살펴보았다. 통제어려움이란 섹스, 음식, 돈, 술, 담배 등의 여러 항목에 대해서 중독적 성향을 경험하여 통제의 필요성을 느끼거나 의지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을 말한다. Cooper(2001a)의 연구에서 사이버섹스 중독집단은 섹스, 돈, 술, 일 등의 순으로, 비중독 집단에서는 술, 돈, 음

식 순으로 통제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독집단은 섹스에 대한 통제에 어려움을 느꼈으며, 현재도 느끼고 있음을 나타냈다. 즉, Young(2001)이 제시한 섹스의 과거력이 있는 사람들은 사이버섹스 중독의 고위험군이라고 밝힌 이론을 뒷받침하는 결과다. Cooper(2001a)는 섹스에 대한 중독적 성향이 있는 사람들은 인터넷에서 우연히 섹스사이트 혹은 성인 방송 등을 접하게 되면 일반 이용자와 달리 성에 대한 중독적·의존적 성향이 발현하여 사이버섹스에 중독된다고 제안했다 Cooper는 이러한 섹스에 대한 중독적 성향이 있는 사이버섹스 중독자를 성적 강박 유형으로 분류했다.

다음으로 이성 관계(or 배우자)에서 사이버섹스 중독이 성생활을 감소시키는지, 사이버섹스 중독이 연애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사이버섹스 중독집단이 비중독 집단보다 이성관계의 성적 활동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중독집단이 스트레스, 관계문제, 불만족 등의 이유로 성관계를 회피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들은 갈등 해결의 기술 혹은 현실생활에 적응하는 대처 전략을 습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향성이 나타난다고 제시했다. 또한, 사이버섹스 중독자는 가상공간의 만족된 섹스로 인해 현실세계의 이성상대와의 섹스에 만족하지 못한다. 이러한 이유들이 이성상대와의 성생활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사이버섹스 중독이 이성관계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사이버섹스 중독집단의 78%, 비중독집단의 35%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했다. 주목할 만한 사실은 심한 중독집단은 이성상대와의 성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인 반면, 약간 중독집단은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이러한 결과는 비중독 집단에서 교육적인 목적으로 사이버섹스에 몰입한다는 내용과 상응하는 것이다. 즉, 중독집단은 사이버섹스 중독으로 관계의 어려움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성상대와의 관계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했지만, 비중독집단은 사이버섹스를 통해 다양한 체위, 성감대 같은 내용을 학습하므로 오히려 이성상대와의 성생활에 약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이버섹스 중독과 관계상태와의 관련성을 제시했는데, 미혼 이면서 이성상대가 있는 집단에서 다른 집단들보다 중독자가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현실에서 성행위가 가능한 집단이 사이버섹스에서 성적 판타지를 실행할 경향성이 높으며, 사이버섹스에 의존할수록 현실의 상대방과의 관계가 멀어질 수 있다고 제안했다.

### 3) 자기통제

자기통제(self-control)는 자신의 인지나 정서, 행동을 원하는 대로 조절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Patterson과 Mischel(1975)은 자기통제를 반복적인 작업에서 주의를 분산하지 않고 지속하는 것으로 정의했으며, Goldfreid와 Merbaum(1973)은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Kagan(1984)은 분노로 유발된 행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Kanfer와 Goldfoot(1966)은 커다란 보상을 받기 위해 혐오적인 자극을 견뎌내는 것으로 정의했다. Savage(1991)는 자신이 선택한 신념이나 목표에 대해 일관성 있게 행동하는 것으로 정의했으며, 감남성(1995)과 김현숙(1998)은 목표 달성을 위해 일시적인 충동 또는 즉각적인 만족을 주는 행동을 제지하고 인내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했다. 특히 이것은 행위자가 직접적으로 외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 조건하에서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통제하는 행동적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본다(송원영, 1998에서 재인용).

자기통제의 실패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데, 이는 특히 충동조절 장애 또는 중독적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자기 통제력이 부족한 사람은 낮은 학업성취, 충동적이고 공격적인 대인관계, 사회적응력의 미숙과 문제해결능력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게 된다(김현숙, 1998). Logue(1995)는 자기통제의 실패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으로 섭식행동, 약물중독, 성

행동, 운동, 교육장면에서의 부정행위, 금전사용에서의 절약, 도박, 절도 등 예로 설명한다. 섭식행동에서 과식이나 폭식과 같은 경우는 자기 통제의 실패로 과도한 충동성이 나타난 경우라고 할 수 있으며, 거식증 역시 과도한 자기통제의 결과로 볼 수 있다.

Young(1998b)은 인터넷 중독을 보이는 사람들이 자신의 이용을 통제하거나 조절할 수 없다는 점에서 병적도박과 같은 경향성을 지니므로 분명한 충동조절장애라고 주장했다. 충동조절 장애의 필수 증상은 개인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될 수 있는 행위를 수행하려는 충동, 욕구, 유혹에 저항하지 못하는 것이다. DSM-IV의 충동조절 장애(다른 곳에 분류되지 않은 충동조절 장애:impulse-control disorders not elsewhere classified)를 살펴보면, 이 분류에 해당하는 장애들은 개인이 행위를 수행하기 전에 긴장감이나 각성상태가 고조되는 것을 느끼고 행위를 할 때 기쁨이나 충족감, 안도감을 경험한다. 행위 후에는 후회, 자기비난, 죄책감이 동반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DSM-IV, 1995). 이와 같이 인터넷 중독은 충동조절 장애의 경향성을 나타내며, 하위유형인 사이버섹스 중독 역시 유사한 증후를 나타낸다.

인터넷 중독과 자기통제의 관계는 Louge(1995)이 제안한 약물중독과 자기 통제력의 예시를 통해 설명할 수 있다. Louge(1995)는 자기 통제와 약물 중독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로 설명한다. 먼저, 자기통제가 약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다. 즉, 즉각적인 만족과 금단현상을 극복하지 못한 낮은 자기 통제력은 반복적으로 약물을 복용하게하며, 더 큰 어려움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반대로, 약물의 영향으로 자기 통제력이 약화되는 경우다. 약물이 몸 안에서 활성화되면서 충동적 행동이 표출되며 그로 인해 자기통제를 하지 못하게 된다.

이와 같이, 자기 통제력이 약한 사람이 인터넷에 접속했을 때 중독적 패턴으로 나타날 경향이 높다. 또한 ACE 모델(익명성, 편리성, 현실도피)과 같

은 인터넷의 속성으로 인해 이용자들은 중독패턴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통제력 상실을 경험할 수 있다.

국내 선행연구들에서 인터넷 중독이 높을수록 자기 통제력이 낮다는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다(안석, 2000; 이시형, 2000; 박구연, 2001; 이계원, 2001; 이선경, 2001; 조해연, 2001; 박성자, 2002; 맹미희, 2003). 송원영(1998)은 인터넷의 중독적 사용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낮은 자기 통제력이 가장 큰 설명력을 갖는다고 보고했으며, 황수정(2000)은 자기 통제력, 자기 효능감, 강박적 성격 등이 인터넷 중독을 예측한다고 보았다.

Young(2001a)은 사이버섹스 중독에 이르는 요인 중 자기 통제력이 낮은 사람들이 사이버섹스 중독에 더 쉽게 빠지는 경향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이와 같이, 자기 통제력은 사이버섹스 중독을 설명하는 유효한 변인으로 볼 수 있다.

#### 4) 우울

우울은 정상적인 기분변화에서부터 병적인 기분상태까지 연속선상에 있다. Beck(1978)은 정신분석적인 접근에서 우울의 원인 요인을 가치 상실, 자존감 상실 및 무력감 등으로 보았으며, 인지론적 접근에서는 자신과 환경 그리고 미래를 부정적으로 지각하는 인지체계에 의해 우울이 나타난다고 밝혔다. 우울 증상은 다른 중독증과 중복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알콜이 우울증과 결합되는 경우가 많으며(Galanter & Castaneda, 1995) 물질 남용은 우울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민성길, 1999; 최민정, 2000에서 재인용).

최근 인터넷 중독과 우울과의 관계를 검증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Young(1996)은 인터넷의 병리적 사용 결과 실생활에서 대인관계를 위축되고 인터넷 사용시간이 늘어날수록 사회적 고립수준이 증가하며 이것이 우울

을 증가시킬 것으로 보았다(최민정, 1998에서 재인용). Young과 Rogers(1997)는 인터넷 중독 집단의 정신건강 연구에서 우울증은 병리적 인터넷 사용의 주요한 요소임을 밝혔고, Gunn(1998)은 우울증과 내성적인 특성을 지닌 사람이 인터넷 중독과 유의미한 상관성이 있음을 보고했다(김종범, 2000에서 재인용). Young(1998)은 인터넷상에서 259명을 대상으로 인터넷의 병리적 사용과 우울 수준이 유의미한 상관성이 있음을 밝혔다. 우울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낮은 자존감, 동기 저하, 거절에 대한 두려움,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인터넷 사용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고, 우울한 사람이 인터넷에 몰입하는 이유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은 상태에서 타인과 얘기할 수 있고 목소리, 시선접촉 같은 비언어적 행동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보고했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 중독의 결과로 실생활에서 사회적 관계가 위축되며 사용시간이 늘어날수록 사회적 고립수준이 증가하여 우울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보고했다. Young(1999)은 인터넷 중독자의 54%가 우울 병력이 있었으며, 34%가 불안 증상을 보인다고 밝혔다(김종범, 2000에서 재인용).

국내 선행연구에서도 우울은 인터넷 중독을 예측하는 변인이며,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윤재희, 1998; 성주은, 1999; 김종범, 2000; 이송선, 2000; 최민정, 2001; 정경란, 2002; 김주연, 2002).

Cooper(2001a)는 우울 성향이 있는 이용자들은 사이버섹스 중독의 경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들은 과거 섹스 중독에 대한 이력은 없지만 불쾌감, 불안, 우울 같은 만성적 감정의 접근을 사이버섹스를 통해 벗어나고 싶어한다. 즉, 사이버섹스를 의기소침, 불안 같은 고질적 감정들을 떨쳐버리는 수단으로 사용한다. 우울은 사이버섹스 중독을 유발할 수 있으며, 사이버섹스 중독을 지속시키는 개인 특성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사이버섹스에 중독될수록 우울은 더 심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사이버섹스 중독과 우울은 사이버섹스 중독의 영향변인으로 예측되지만, 아직 두 변인간의 경험적 연구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 특히, 우울변인은 우

리나라 성인 사이버섹스 중독자를 예측하는 변인으로 연구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우리나라 성인 사이버섹스 중독과 우울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연구는 매우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 5) 스트레스 대처방식

스트레스에 직면한 개체가 안녕을 위협받게 되면 개체는 어떤 형태로든 유기체의 평형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동시에 그에 해당하는 어떤 행동을 하도록 한다(권영구, 2001). 스트레스가 유발된 상황을 종식시키기 위하여 하는 이러한 행위를 대처라고 한다. Lazarus와 Folkman(1984)은 대처란 개인의 자원을 요구하거나 초과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특정한 내외적 요구를 다루기 위해 끊임없이 변화하는 인지적 및 행동적 노력으로 정의했다.

각 학자마다 대처양식에 대해 다양한 분류를 하고 있다. Gutmann(1964)은 한 개인이 어떤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외적 환경을 통제하는 능동적 대처와 외적 환경에 순응 또는 타협하려는 수동적 대처, 문제 해결을 신비나 우연에 맡기며 상황을 왜곡하는 신비적 대처로 분류했다. Frederic(1980)은 지각된 스트레스에 대해 직접적 행동을 취하는 대처, 스트레스 요인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대처, 스트레스 요인을 합리화시키거나 또는 도피하는 행동을 취하는 대처로 분류했다. Billings, Cronkite, Moors(1983)은 평가 지향적 대처-논리적 분석, 문제 지향적 대처-정보추구, 정서 지향적 대처-감정조절로 분류했다(송소원, 1999에서 재인용).

Lazarus와 Folkman(1984)은 문제 중심적 대처와 정서 중심적 대처로 분류한다. 문제 중심적 대처는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개인의 행동을 변화시키거나 환경 자극 자체를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말한다. 직면적인 대처나 계획적인 문제 해결 등이 하위유형에 속한다. 정서 중심적 대처는 스트레스 자

극으로 인해 유발되는 부적인 정서를 조절하여 삶과 환경과의 관계에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것이다. 자기통제나 거리두기 등이 하위유형에 속한다(Lazarus와 Folkman,1984; 송소원, 1999에서 재인용). 김정희(1987)는 Lazarus(1985)가 개발한 대처방식척도에 기초하여 요인 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문제 중심적 대처, 사회적지지 추구, 소망적 사고, 정서 완화적 대처로 구분하며, 문제 중심적 대처와 사회적지지 추구는 적극적 대처로 정서완화적 대처와 소망적 사고는 소극적 대처로 분류하였다.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사건에 대한 인지적 평가와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가 있다. 먼저 인지적 평가요인부터 살펴보면 스트레스 자극이 되는 사건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대처양식이 달라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건이 통제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적극적인 행동으로 대처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부정, 도피와 같은 수동적인 행동을 취하게 된다. Lazarus와 Folkman(1980)은 스트레스를 주는 사건이 통제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영역에서는 문제 중심적인 대처방식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으며 반대로 통제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영역에서는 정서 중심적인 대처양식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요인을 살펴보면, 사람들은 보통 자신을 유능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적극적인 대처방식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Atkinson, 1979). 이러한 유능감은 사건통제 영역이 내부적 통제신념이나 혹은 외부적 통제신념이나에 따라 달라진다. 내부적 통제신념은 스트레스의 원인을 자신이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외부적 통제신념은 스트레스를 운명이나 요행, 권력 있는 타인과 같이 외부적인 것에 의해 기인한다고 보는 것이다. 즉, 내부적 통제신념이 외부적 통제신념보다 더 강하게 작용할 경우 스트레스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게 된다(Rotter, 1965; 송소원, 1999).

최근 스트레스와 인터넷 중독,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인터넷 중독간의 관계를 검증하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이 연구들에서 스트레스는 인터넷

중독을 영향력 있게 설명해주는 요인으로 보고하고 있다(박소희, 2000; 맹미희, 2003). 또한 권정혜(2000)연구에서는 스트레스 대처방식 중 회피적 대처방식은 인터넷 중독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측했다.

Cooper(2001a)는 스트레스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사이버섹스 이용자들은 중독적 경향성이 높음을 밝혔다. Cooper는 이들을 스트레스-반응 유형으로 분류하고 높은 스트레스 상황에 처했을 때 스트레스 상황과 그로 유발되는 불편한 감정에 대처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사이버섹스를 이용한다고 제안했다. 사이버섹스 이용자 중 남성의 32%와 여성의 17%가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하여 사이버섹스를 이용한다고 응답했다. Black, Kehr, Flumerfelt and Schlosser(1997)는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동안 문제를 일으키는 성적 행동이 유의미하게 증가한다고 보고했다.

스트레스를 중독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은 스트레스 대처방식에서 소극적 대처방식을 더 많이 이용할 것이다. 이들은 스트레스 사건을 통제하기 어려운 거승로 인지하며, 스트레스 사건이 외적요인(운명, 요행, 권력 등)에 기인하여 스트레스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적극적인 문제 중심 대처와 사회적 지지추구와 같은 방법보다는 감정완화 대처 혹은 소망적 사고 같은 소극적 대처를 더 많이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사이버섹스 중독간의 관계는 영향변인으로 예측되지만, 경험적 연구로는 밝혀지지 않았다. 특히, 우리나라 성인 사이버섹스 이용자들 그리고 중독자들에 있어서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얼마나 관계가 있고 영향을 미치는지는 밝혀진 것이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 성인 사이버섹스 중독과 스트레스 대처방식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연구는 매우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 3.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만 18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사이버섹스 중독과 사이버섹스 태도 및 영향, 자기통제, 우울, 스트레스 대처방식간의 관계를 살펴본다. 사이버섹스 중독집단과 비중독 집단을 대상으로 Cooper(2001b)의 online-offline 성적 태도와 행동적 질문지를 번안하여 사이버섹스 중독에 대한 전반적인 인구통계학적 변인, 이용실태와 접속동기, 관계에 미치는 영향, 통제의 어려움에서 두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볼 것이다. 또한, 자기통제, 우울,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사이버섹스 중독집단과 비중독집단에서 차이 정도를 보이는지 알아볼 것이며, 어떤 변인이 사이버섹스 중독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지도 살펴볼 것이다.

#### 연구문제 1

사이버섹스 중독 집단과 비중독 집단 간의 차이를 검증한다.

가설 1. 사이버섹스 중독 집단과 비중독 집단은 인구통계학적 변인(나이, 성별, 학력, 직업, 수입, 이성 및 관계상태)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일 것이다.

가설 2. 사이버섹스 중독 집단과 비중독 집단은 이용실태(인터넷 사용 시간, 이용매체, 이용 장소, 사이버섹스 이용시간)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일 것이다.

가설 3. 사이버섹스 중독 집단과 비중독 집단은 접속동기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일 것이다.

가설 4. 사이버섹스 중독 집단과 비중독 집단은 통제어려움을 겪는 항목과 통제 어려움을 겪는 여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일 것이다.

가설 5. 사이버섹스 중독 집단과 비중독 집단은 관계(relationship)에 미치

는 영향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일 것이다.

## **연구문제 2**

사이버섹스 중독 집단과 비중독 집단 간의 자기통제, 우울, 스트레스 대처방식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검증한다.

가설 1. 사이버섹스 중독 집단은 비중독 집단 보다 자기 통제가 낮을 것이다.

가설 2. 사이버섹스 중독 집단은 비중독 집단보다 우울이 높을 것이다.

가설 3. 사이버섹스 중독 집단은 비중독 집단보다 소극적 대처방식(감정 완화대처, 소망적 사고대처)이 적극적 대처방식(문제중심 대처, 사회적 지지추구)이 보다 높을 것이다.

## **연구문제 3**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사이버섹스 중독에 대한 행동 및 영향, 자기통제, 우울,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사이버섹스 중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본다.

## II. 연구방법

### 1. 조사대상자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는 만 18세 이상의 성인 남녀로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설문(<http://cybersex.dothome.co.kr>)과 서울 소재 PC방과 기업(사무실), 서울과 수도권, 지방대학의 학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온라인 설문(<http://cybersex.dothome.co.kr>)은 일정 기간 동안 접속하여 응답한 피험자를 대상으로 78부 중 성실하게 응답하지 않은 25부를 제외하고 51부를 포함시켰다. 일반 설문은 총 400부의 질문지를 배부하여 320부를 돌려받았고, 성실하게 응답하지 않은 101부를 제외하고 219를 포함시켰다. 총 270명의 피험자 데이터를 얻었으며, 사이버섹스 중독집단의 분류는 김 민이 번안한 Young(2001)의 사이버섹스 중독검사지 (The Cybersexual Addiction Index : CAI)를 이용하였다. Young의 검사지는 사이버섹스 중독정도를 0-30점은 비중독, 31-49점은 경미한 중독, 50-79점은 중등도 중독, 80-100점은 중증 중독으로 분류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0-30점을 비중독으로 분류하고, 경미한 중독의 시잠점인 31점 이상은 중독으로 분류하였다. 사이버섹스 중독은 37명 비중독은 233명이다.

### 2. 측정도구

#### 1) 사이버섹스 중독의 태도 및 영향에 관한 질문지

Cooper(2001b)의 online-offline의 성적 태도와 행동적 질문지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문항을 선택하여 번안하였다. 김 민(2003)의 청소년 인터넷 중

독증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 중 이용실태 부분을 선택하여 포함시켰다. 총 18문항으로 인구통계학적 변인(나이, 성별, 학력, 직업, 수입, 관계상태) 6문항, 사이버섹스 이용실태(인터넷 이용시간, 이용매체, 접속장소, 사이버섹스 이용시간) 4문항, 접속동기 2문항, 사이버섹스가 관계에 미치는 영향 5문항, 통제어려움 항목 2문항, 중독 자각 유무 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 2) 사이버섹스 중독 검사지

사이버섹스 중독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Young(2001)이 제작하고 김 민(2003)이 수정·번안한 사이버섹스 중독 검사지(The Cybersexual Addiction Index : CAI)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6개 응답항목의 5점 척도로 구성되어있다(결코 아니다=0, 아주 드물게 그렇다 =1, 가끔 그렇다 =2, 종종 그렇다=3 자주 그렇다=4, 항상 그렇다=5). 점수의 합이 0-30점이면 비중독, 31-49점이면 경미한 중독, 50-79점이면 중등도의 중독상태이며, 80점이상 100점이면 중증 중독을 말한다. 문항 내용은 사이버섹스를 하는 시간과 사이버섹스에 대한 인식, 사이버섹스를 함으로 인한 일상적 생활의 장애 여부, 온라인 상황에서의 성적 강박행동과 인터넷에 대한 의존적 특성, 사이버섹스로 인한 대인관계 성향의 변화, 통제 조절력과 행동상의 문제, 사이버섹스를 통한 보상욕구 여부, 오프라인에서의 성적 행위변화와 전이 여부, 비정상적인 온라인 성적 행동 여부 등을 포함하고 있다. Cronbach  $\alpha$  값은 .91로 나타났다(김 민, 2003). 본 연구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  값 .95이다.

## 3) 자기통제 척도

Kendall 과 Wilcox(1979)는 교사·부모 보고형으로 아동의 일반적인 자기 통제 능력을 측정하는 검사지를 제작했다. 송원영(1998)이 자기 보고형으로

고쳐 제작한 것을 사용하였다. 일반적으로 자신에게 맞다고 생각되는 정도에 따라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의 5점 척도의 2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 통제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역산 채점을 해야 하는 문항은 5, 6, 7, 8, 9, 10, 11, 15, 19번 문항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기통제력 척도의 Cronbach  $\alpha$  값은 .84 이다.

#### 4) 우울척도

Beck(1967)이 개발한 BDI를 이영호(1993)가 번안했다. 이 척도는 정서적, 인지적, 동기적, 생리적 중후군 등 21개 영역을 포함하고 있고, 4점척도이며 점수범위는 0점에서 63점까지이다. Bumburry, Oliver 및 McClure(1987)는 정상인의 BDI 점수는 3.94이고, 경우울증의 BDI 점수는 14.19, 중우울증의 BDI 점수는 22.8점으로 본다. 그러나, Beck(1967)은 9점 이하는 우울하지 않은 것으로, 경우울증 10-15점, 우울증 16-23점, 중우울증 24-63점으로 분류하고 있다.(김연, 1985). 신뢰도에서 Beck(1961)의 우울증 측정표와 신뢰도 및 양분상관계수는 .65에서 .67까지이고, 이영호(1993)의 수정문항을 대학생 125명에게 실시한 결과, Cronbach  $\alpha$  =.98, 반분신뢰도 계수는 .91 이었다.

#### 5) 스트레스 대처방식 척도

이 척도는 Folkman과 Lazarus(1985)이 개발한 대처방식척도(The Ways of Coping Checklist)이다. 김정희와 이장호(1985)가 요인 분석하여, 구성하고, 본 연구에서는 김은정(1999)이 사용한 24문항의 축약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4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즉 문제중심 대처, 사회적 지지 추구대처, 정서완화적 대처, 소망적 사고대처이고, 이를 다시 크게 두가지로 구분해서 문제중심적 대처와 사회적 지지 추구대처를 합하여 적극적

대처로, 감정 완화적 대처와 소망적 사고 대처를 묶어서 소극적 대처로 분류한다. 문항들은 문제 중심적 대처 5문항, 사회적 지지 추구대처 6문항, 감정 완화적 대처 6문항, 소망적 사고 대처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사용하지 않은(0)'에서 '아주 많이 사용(3)'으로 4점척도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대처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각 문항에 해당하는 번호는 다음과 같다. 적극적 대처의 문제중심대처는 1,2,9,10,17,18번 문항이며 사회적 지지추구 대처는 5,6,15,16,23,24번 문항이다. 소극적 대처방식의 감정완화대처 문항은 7,8,11,12,19,20번 문항이다. 소망적 사고대처 방식은 3,4,13,14,21,22번 문항이다. 신뢰도 계수는 적극적 대처방식이 Cronbach  $\alpha$  =.77, 소극적 대처방식의 신뢰도 계수는 Cronbach  $\alpha$  =.77 이다.

### 3. 연구절차

본 연구는 온라인 설문과 일반 설문 2가지로 진행됐다. 먼저 온라인 설문을 살펴보면, 이 방법은 Young(1996), Gunn(1998), Cooper(2001), 송원영(1998) 등의 연구에서 사용한 방법이다. 인터넷(www)에 설문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지정한 서버에 올린 후 이 주소 <http://cybersex.dothome.co.kr> 로 인터넷에 접속한 피험자들이 각 문항을 클릭하면 응답 내용이 지정한 서버로 저장되게 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조사의 활성화를 위하여 검색엔진에 '사이버섹스', '사이버섹스 중독', '섹스', '인터넷 중독' 을 검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만 18세 이상의 성인 남녀로 제한하였으며, 응답자 총 78명 중 불성실하게 대답하거나 중간에 응답안한 데이터 25개를 제외하고 51개를 본 연구에 포함시켰다. 온라인 설문은 2004년 10월 18일부터 2004년 11월 14일까지 약 4주 동안 진행됐다.

일반설문은 2004년 11월 1일부터 2004년 11월 13일까지 약 2주동안 진행되었으며, 서울 소재 PC방 1곳과 기업의 사무실 2곳, 서울소재 대학 및 대

학원 2곳과 지방대학 2곳을 중심으로 400부를 배포하고 320부를 돌려받았다. 이중 불성실한 101부를 제외하고 219부를 포함시켰다.

전체 270개의 자료 중 남성은 136명 여성은 97명이고, 전체 중독자는 37명으로 14.7%이며, 성별로 보면 남성 중독자는 23명, 여성중독자는 14명이었다. 설문지 앞장에는 이 연구의 목적과 주의사항, 개인 비밀보장에 관한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였으며, 질문 응답에 걸리는 시간은 10-15분 정도였다.

#### 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12.0을 통해 분석되었다.

- 1) 사이버섹스 중독집단과 비중독 집단의 인구통계학적 변인들의 분포도와 집단의 차이, 이용실태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카이검정( $\chi^2$ )을 실시했 실시했다.
- 2) 사이버섹스 중독집단과 비중독 집단에서 복수응답을 한 사이버섹스 접속 동기와 통제어려움 항목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에서 odds ratio를 구하고 카이검정( $\chi^2$ )을 실시했다.
- 3) 사이버섹스 중독집단과 비중독 집단간의 이성 관계에 미치는 영향들 (11,12번)과 사이버섹스 이용시간(9번)의 차이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t-test를 실시했다.
- 4) 사이버섹스 중독집단과 비중독 집단간의 인구통계학적인 차이를 나타내는 관계상태(17번) 항목에서 변량분석(ANOVA)를 실시하고 post-hoc으로 다섯 집단간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또한, 두 집단간 사이버섹스 중독이 결혼생활에 미치는 영향(17-1, 17-2, 17-3)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변량분석(ANOVA)를 실시했다. 또한 복수 응답으로 된 통제 어려움 항목에 대해서 한가지라도 중독이 있으면 1로 중독이 없으면 2로 리코딩하여 사이버섹스 중독과 통제어려움을 겪는 여부와와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 5) 인구 통계학적 변인에서 두 집단간 차이를 보이는 관계상태를 통제하고 사이버섹스 중독과 비중독 집단간에 차이를 보이는 요인들의 특성을 검증하기 위해 자기통제, 우울,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대해 공변량분석(ANCOVA)를 실시했다.
- 6) 인구통계학적 변인 및 다른 변인들이 사이버섹스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각 변인들과 사이버섹스와의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한 후, 단계적 중다회귀분석(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 Ⅲ. 연구결과

#### 1. 사이버섹스 중독집단과 비중독집단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사이버섹스 중독집단과 비중독 집단간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카이검정( $\chi^2$ )을 실시하였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으로는 나이, 성별, 학력, 직업, 수입, 관계상태(relationship status)로 구성하였다. 두 집단간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차이를 비교한 결과 관계상태( $\chi^2=36.57, p<.001$ )를 제외한 모든 특성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관계상태에 대한 두 집단의 특성을 비교한 결과 두 집단 모두 미혼이고 이성상대가 있음이 가장 많았으며, 중독집단에서는 기혼, 동거, 기혼이면서 은밀히 만나는 사람이 있음, 싱글이며 이성상대 없음 순으로 나타났다. 비중독 집단에서는 싱글이며 이성상대 없음, 기혼, 기혼이며 은밀히 만나는 사람이 있음, 동거 순으로 나타났다. 두 집단의 가장 큰 차이는 중독집단에서 동거상태인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다.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두 집단간의 카이검정에 대한 결과는 <표 1>에 제시되어있다.

전체 집단에서 중독집단은 14.7%이며 사이버섹스 중독집단의 중독 정도는 경미한 중독(mild)이 26명(9.6%), 중등도 중독(moderate)이 10명(3.7%), 중증중독(severe)이 1명(0.4%)로 나타났다. 전체 37명의 중독집단에서 남성 중독자는 23명, 여성 중독자는 14명이다.

<표1> 사이버섹스 중독집단과 비중독집단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인구통계학적 변인	중독		$\chi^2$	
	사례수(%)			
나 이	10대	3(8.15)	9(3.9)	1.44
	20대	23(62.2)	150(64.4)	
	30대	10(27)	65(27.9)	
	40대	1(2.7)	9(3.9)	
		37	233	
성 별	남	23(62.2)	136(58.4)	0.19
	여	14(37.8)	97(41.6)	
		37	233	
학 력	중졸이하	0(0)	0(0)	6.84
	고졸	11(29.7)	31(13.3)	
	대학재학	9(24.3)	78(33.5)	
	대졸	11(29.7)	81(34.85)	
	대학원 재학	4(10.8)	25(10.7)	
	대학원졸 이상	2(5.4)	18(7.7)	
		33	233	
직 업	학생	13(35.1)	101(43.3)	16.33
	주부	3(8.1)	22(9.4)	
	행정 및 관리직	0(0)	4(1.7)	
	전문 기술직 및 관련직	2(5.4)	17(7.3)	
	판매직	5(13.5)	7(3.0)	
	사무직	4(10.8)	44(18.9)	
	서비스직	3(8.1)	12(4.3)	
	생산직 종사자	2(5.4)	2(0.9)	
	농림 수산업, 임업, 광업	0(0)	0(0)	
	성직자	0(0)	1(0.4)	
	무직	1(2.7)	4(1.4)	
	기타	4(10.8)	21(9.0)	
		37	223	
수 입	100만원 미만	13(36.1)	100(43.5)	4.07
	100~200만원 미만	15(41.7)	71(30.9)	
	200~300만원 미만	4(11.1)	42(18.3)	
	300~400만원 미만	4(11.1)	14(6.1)	
	400만원 이상	0(0)	3(1.3)	
	36	230		

\*p<.05, \*\*\*p<.001

인구통계학적 변인	중독	비중독	$\chi^2$
	사례수(%)	사례수(%)	
관계 상태	기혼	61(26.3)	36.57***
	기혼이나 은밀히 만나는 상대가 있음	5(13.5)	
	동거	2(0.9)	
	싱글이고 이성 상대가 있음	82(35.3)	
	싱글이고 이성상대가 없음	79(34.1)	
		5(13.5)	

\*\*\*p<.001

## 2. 사이버섹스 중독의 이용실태

사이버섹스 이용실태는 인터넷 사용시간, 이용매체, 이용 장소, 사이버섹스 이용시간으로 구성하였다. 사이버섹스 중독집단과 비중독 집단의 이용실태에 대한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카이검정( $\chi^2$ )을 실시하였다. 두 집단에서 인터넷 이용시간, 사이버섹스 이용 장소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이용매체( $\chi^2=13.80$ ,  $p<.05$ ), 사이버섹스 이용시간( $\chi^2=27.13$ ,  $p<.001$ )에서는 두 집단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사이버섹스 중독집단은 사이버섹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성인 사이트·성인방송(24.3%), 이메일(21.6%), P2P(10.8%) 순으로 많이 이용하며, 비중독 집단에서는 이메일(31.1%)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사이버섹스 이용에 이메일을 이용하는 것은 이메일을 통해 지속적으로 성인사이트에 접속을 하거나 혹은 광고성 음란 스팸메일을 통해 호기심으로 접속해보거나 음란 사진이나 글을 주고받는 것 등의 방법들이 포함된다. 대부분의 비중독 집단은 광고성 음란 스팸메일을 통해 성인 사이트 등에 접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

<표2> 사이버섹스 중독의 이용실태

인구통계학적 변인	중독		$\chi^2$	
	사례수(%)	비중독 사례수(%)		
인터넷 이용 시간	7시간 미만 (하루평균 1시간 미만)	11(29.7)	74(31.8)	2.15
	7~14시간 (하루 평균 약 2시간)	11(29.7)	68(29.2)	
	15~21시간 (하루 평균 약 3시간)	6(16.2)	33(14.2)	
	22~28시간 (하루 평균 약 4시간)	3(8.1)	25(10.7)	
	29~35시간 (하루 평균 약 5시간)	0(0)	7(3.0)	
	36시간 이상 (하루 평균 5시간 이상)	6(16.2)	26(11.2)	
		37	233	
이용 매체	이메일	8(21.6)	71(31.1)	13.80*
	성인 채팅 사이트	6(16.2)	10(4.4)	
	성인사이트, 성인 방송	9(24.3)	40(17.5)	
	모바일(휴대폰,PDA)	3(8.1)	6(2.6)	
	P2P(갬블, 당나귀 등)	4(10.8)	46(20.2)	
	와레즈 사이트	1(2.7)	8(3.5)	
	기 타	6(16.2)	47(20.6)	
	37	228		
이용 장소	집	15(40.5)	133(58.8)	7.70
	직장(또는 학교)	5(13.5)	15(6.6)	
	집과 직장 둘 다	4(10.8)	21(9.3)	
	PC 방	5(13.5)	12(5.3)	
	기타	8(21.6)	43(19.0)	
	37	226		

\*p<.05

인구통계학적 변인	중독		$\chi^2$
	사례수(%)	비중독 사례수(%)	
7시간 미만 (하루 평균 1시간 미만)	21(56.8)	197(89.5)	27.12***
7~14시간 (하루 평균 약 2시간)	10(27.0)	16(7.3)	
15~21시간 (하루 평균 약 3시간)	3(8.1)	3(1.4)	
22~28시간 (하루 평균 약 4시간)	2(5.4)	3(1.4)	
29~35시간 (하루 평균 약 5시간)	1(2.7)	1(0.5)	
36시간 이상 (하루 평균 5시간 이상)	0(0)	0(0)	
	37	220	

\*p<.05, \*\*\*p<.001

다. 이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사이버섹스 이용시간에 대한 두 집단의 차이 정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T검정을 실시하였다. 각 문항의 평균 시간값을 수치화하여 인터넷 이용시간과 사이버섹스 이용시간에 대한 평균을 구하였다. 인터넷 이용시간은 중독집단(17.69±13.22)과 비중독집단(16.91±12.49)로 두 집단의 차이가 없었다. 사이버섹스 중독집단(10.12±9.25)은 비중독집단(5.01±4.99)보다 사이버섹스를 두배 많은 시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4.96\*\*, p<.001). 이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3>에 제시했다. 이러한 결과는 연구문제 1의 가설 2를 지지한다.

<표3> 사이버섹스 중독의 이용시간

	중독(n=37)		비중독(n=220)		t
	M	SD	M	SD	
사이버섹스 이용시간	10.12	9.25	5.01	4.99	4.96***

\*\*\*p<.001

### 3. 사이버섹스 중독의 태도 및 관계에 미치는 영향

#### 1) 사이버섹스 중독의 접속동기

##### ① 사이버섹스 중독의 접속동기

사이버섹스 중독집단과 비중독집단간의 사이버섹스 접속동기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접속동기는 교육적인 목적, 기분전환, 스트레스 해소, 이성과 데이트, 오프라인에서 함께 섹스 할 사람과의 만남, 온라인에서 성적 흥미를 나눌 사람과의 만남, 실제로 할 수 없는 섹스를 함, 섹스 자료구입 으로 구성하였다. 이 문항은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고르는 복수응답으로 제시했다. 사이버섹스 접속 동기에 대한 두 집단간의 특성을 비

<표 4> 사이버섹스 중독의 접속동기

	TOTAL	중독 사례수(%)	비중독 사례수(%)	$\chi^2$
교육	45(11.3)	7(9.2)	38(11.8)	42.39***
기분 전환	173(43.5)	19(25)	154(47.8)	
스트레스	97(24.4)	14(18.4)	83(25.8)	
이성 데이트	22(5.5)	9(11.8)	13(4.0)	
오프라인에서 섹스	15(3.8)	6(7.9)	9(2.8)	
성적흥미를 나눔	15(3.8)	8(10.5)	7(2.2)	
실제로 할 수 없는 섹스를 하기위해	16(4.0)	6(7.9)	10(3.1)	
섹스 자료 구입	15(3.8)	7(9.2)	8(2.5)	
		76	322	

\*\*\*p<.001

교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 $\chi^2=42.39, p<.001$ )를 나타냈으며, 중독집단은 기분 전환(25%), 스트레스 해소(18.4%), 성적흥미를 나눌 사람과의 만남(10.5%) 등 순으로 나타났다. 비중독 집단은 기분전환(47.8%), 스트레스(25.8%), 교육적인 목적(11.8%) 등 순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는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사이버섹스 중독의 접속 동기에 대하여 두 집단의 유효한 차이가 나타나는 접속동기를 선별하기 위하여, odds ratio를 구한 후 카이검정( $\chi^2$ )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비중독 집단은 중독집단보다 기분전환( $\chi^2=5.72, p<.05$ ) 항목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반면, 중독집단은 비중독집단보다 성적흥미를 나누기위한 만남( $\chi^2=10.46, p<.005$ ), 섹스자료 구입( $\chi^2=6.48, p<.005$ ), 이성과의 데이트( $\chi^2=6.15, p<.05$ ), 오프라인에서의 만남( $\chi^2=3.98, p<.05$ )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사이버섹스 중독집단은 비중독 집단 보다 성적 흥미를 나누기위한 만남과 섹스 자료의 구입, 이성과의 데이트, 오프라인에서의 만남을 목적으로 사이버섹스를 이용한다고 볼 수 있다. 분석 결과는 <표 5>에 제시했다.

Cooper(2001a)의 연구에서 ‘현실에서 하지 못했던 섹스를 온라인에서 한다’의 문항은 사이버섹스 중독자들의 중독 요인을 밝히는데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도 접속동기 중 ‘현실에서 하지 못했던 섹스를 온라인에서 한다’의 문항을 포함시켜 중독집단과 비중독집단의 특성차이를 비교하였으며 두 집단의 차이 정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t검정을 실시했다. 사이버섹스 중독집단( $1.36\pm 1.13$ )은 비중독 집단( $0.31\pm 0.06$ )보다 현실에서 하지 못한 섹스를 온라인에서 한다고 응답했으며, 그 차이는 사이버섹스 중독집단이 비중독집단보다 4배 많은 응답률을 보였다( $t=8.47, p<.001$ ). 이러한 결과는 사이버섹스 중독자들이 현실에서 하지 못한 판타지를 실현하기 위해 사이버섹스를 중독적으로 사용한다고 볼 수 있다. 분석결과는 <표6>에 제시했다.

<표 5> 사이버섹스 중독의 접속동기 (odds ratio)

	TOTAL	중독 (%)	비중독 (%)	odds ratio (95% CI)	$\chi^2$
교육	11.3	9.2	11.8	0.78 (.336, 1.82)	.33
기분 전환	43.5	25	47.8	.52 (.31, .90)	5.72*
스트레스	24.4	18.4	25.8	.72 (.39, 1.33)	1.14
이성 데이트	5.5	11.8	4.0	2.93 (1.21, 7.11)	6.15*
오프라인에서 만남	3.8	7.9	2.8	2.83(.98, 8.18)	3.98*
성적흥미를 나눔	3.8	10.5	2.2	4.85(1.70, 13.76)	10.46**
실제로 할 수 없는 섹스를 하기위해	4.0	7.9	3.1	2.54(.90, 7.21)	3.28
섹스 자료 구입	15	9.2	2.5	3.71(1.30, 10.54)	6.84**

\*p<.05, \*\*p<.005

Cooper(2004)는 이러한 판타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사이버섹스를 하는 유형을 판타지 타입(fantasy type)으로 분류하며, 이들은 성적 강박이 될 수 있음을 밝혔다.

<표6> 현실에서 하지 못한 섹스의 두 집단 비교

	중독(n=37)		비중독(n=230)		t
	M	SD	M	SD	
현실에서 하지 못한 섹스	1.36	1.13	0.31	0.60	8.47***

## ② 사이버섹스 중독의 직장에서의 접속동기

사이버섹스 중독집단과 비중독 집단의 직장에서의 사이버섹스 접속동기를 살펴보았다. 직장에서의 사이버섹스 접속동기는 교육적인 목적, 기분전환, 스트레스 해소, 이성과의 데이트, 성적 흥미를 나눔, 실제로 할 수 없는 섹스를 함, 직장에서 인터넷 접속 가능, 직장에서 많은 시간을 보냄, 집에서 하는 것이 불편(예, 배우자나 애인이 싫어하기 때문)으로 구성하였다. 본 문항도 ‘모두’ 선택하는 복수응답으로 제시하였다. 직장에서의 사이버섹스 접속 동기에 대한 두 집단의 차이는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chi^2=71.57$ ,  $p<.001$ ).

<표7> 사이버섹스 중독집단의 직장에서의 접속동기

	TOTAL	중독 사례수(%)	비중독 사례수(%)	$\chi^2$
교육	31(11.1)	7(11.5)	24(11.0)	
기분 전환	103(36.85)	13(21.3)	90(41.1)	
스트레스	46(16.4)	5(8.2)	41(18.7)	
이성 데이트	20(7.1)	16(26.2)	4(1.8)	
성적흥미를 나눔	14(5.0)	1(1.6)	13(5.9)	71.57***
실제로 할 수 없는 섹스를 하기위해	10(3.6)	8(13.1)	2(0.9)	
직장에서 인터넷이 가능	12(4.3)	2(3.3)	10(4.6)	
직장에서 많은 시간보냄	32(11.4)	5(8.2)	27(12.3)	
집에서 하는 것 이 불편함	12(4.3)	4(6.65)	8(3.7)	
	280	61	219	

\*\*\* $p<.001$

분석결과는 <표 7>에 제시했다. 두 집단의 유효한 차이를 알기 위하여 교차 분석에서 odds ratio를 사용한 후 카이검정( $\chi^2$ )을 실시했다. 사이버섹스 중독집단은 비중독 집단보다 이성과의 데이트를 목적으로( $\chi^2=33.16, p<.001$ ), 실제로 할 수 없는 섹스를 하기 위해서( $\chi^2=13.1, p<.001$ ) 직장에서 사이버섹스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중독 집단은 기분전환( $\chi^2=4.06, p<.05$ )을 목적으로 직장에서 사이버섹스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는 <표 8>에 제시했다. 이러한 결과는 연구문제 1의 가설3을 지지한다.

<표 8> 사이버섹스 중독의 직장에서의 접속동기 (odds ratio)

	TOTAL	중독 사례수(%)	비중독 사례수(%)	odds ratio (95% CI)	$\chi^2$
교육	11.1	11.5	11.0	1.05(.43, 2.55)	.01
기분 전환	36.85	21.3	41.1	.52(.27, .99)	4.06*
스트레스	16.4	8.2	18.7	.44(.17, 1.16)	2.92
이성 데이트	7.1	26.2	1.8	14.36(4.63, 44.54)	33.16***
성적흥미를 나눔	5.0	1.6	5.9	.28(.04, 2.15)	1.72
실제로 할 수 없는 섹스를 하기위해	3.6	13.1	0.9	14.36(2.97, 69.39)	18.05***
직장에서 인터넷 가능	4.3	3.3	4.6	.72(.15, 3.36)	.18
직장에서 많은 시간을 보냄	11.4	8.2	12.3	.67(.25, 1.80)	.65
집에서 하는 것 의 불편함	4.3	6.65	3.7	1.80(.52, 6.16)	.89

\*p<.05, \*\*\*p<.001

## 2) 사이버섹스 중독·비중독집단의 통제어려움을 겪는 항목

이 문항은 과거 혹은 현재에 섹스, 음식, 돈, 술, 담배 등의 여러 항목에 대해서 통제어려움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항목에서 이러한 경향성을 나타내는지 알아보는 문항이다. 사이버섹스 중독자와 비중독자의 통제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목을 알아보기 위하여 카이 검정( $\chi^2$ )을 실시하였다. 또한 집단 내에서 백분율은 두 집단간의 유효한 항목의 차이를 나타내지 못하므로 odds ratio를 구하고 다시 카이검정( $\chi^2$ )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사이버섹스 중독집단과 비중독 집단이 한가지 종류라도 통제의 어려움이 있었는지를 리코딩하여(중독=1, 비중독=2), 사이버섹스 중독과 통제어려움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두 집단의 특성을 비교하여 차이 정도를 비교하였다.

### ① 과거 통제어려움

사이버섹스 중독집단과 비중독집단의 통제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목에 대하여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았다. 통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목은 술, 담배, 마약, 도박, 음식, 성(sex), 일(work), 쇼핑/돈, 없다 로 구성하였다. 과거 통제 어려움 항목에서 두 집단은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chi^2=65.07$ ,  $p<.001$ ). 분석결과는 <표 9>에 제시했다. 두 집단간 유효한 항목을 비교하기 위하여 odds ratio를 사용하여 카이검정( $\chi^2$ )을 실시하였다. 사이버섹스 중독집단은 마약( $\chi^2=10.28$ ,  $p<0.05$ )과 섹스( $\chi^2=28.13$ ,  $p<.001$ )에 있어서 비중독집단보다 유의미하게 통제의 어려움을 겪었다고 볼 수 있으며, 비 중독 집단은 '없다' ( $\chi^2=16.49$ ,  $p<.001$ )라고 응답한 항목에서 사이버섹스 중독집단보다 유의미하게 차이가 났다. 분석한 결과는 <표 10>에 제시했다. 두 집단의 과거 통제 어려움이 차이 정도를 살펴보기 위해서 중독=1로 비중독=2로 리코딩 하여 변량분석(ANOVA)을 실시했다.

<표 9> 과거 통제 어려움을 겪는 항목

	TOTAL	중독 사례수(%)	비중독 사례수(%)	$\chi^2$
술	66(17.2)	13(21.3)	53(16.5)	65.07***
담배	94(24.5)	15(24.6)	79(24.5)	
마약	2(0.5)	2(3.3)	0(0)	
도박	12(3.1)	3(4.9)	9(2.8)	
음식	28(7.3)	7(11.5)	21(6.5)	
성 (SEX)	21(5.5)	13(21.3)	8(2.5)	
일(WORK)	22(5.7)	2(3.3)	20(6.2)	
쇼핑 / 돈	34(8.9)	5(8.2)	29(9.0)	
없다	104(27.2)	1(1.6)	103(32)	
	388	61	322	

\*\*\*p<.001

<표10> 과거 통제 어려움을 겪는 항목(odds ratio)

	TOTAL	중독 사례수(%)	비중독 사례수(%)	odds ratio (95% CI)	$\chi^2$
술	17.2	21.3	16.5	1.30(.67, 1.52)	.058
담배	24.5	24.6	24.5	1.00(.54, 1.86)	.001
마약	0.5	3.3	0		10.28**
도박	3.1	4.9	2.8	1.76(.46, 6.69)	.71
음식	7.3	11.5	6.5	1.76(.72, 4.32)	1.56
성 (SEX)	5.5	21.3	2.5	8.58(3.41, 21.57)	28.13***
일(WORK)	5.7	3.3	6.2	.53(.12, 2.32)	.74
쇼핑 / 돈	8.9	8.2	9.0	.910(.34, 2.44)	.04
없다	27.2	1.6	32	.051(.007, .374)	16.49***

\*\*p<.005, \*\*\*p<.001,

통제어려움이 있음( $1.78 \pm 0.42$ )과 통제어려움이 없음( $1.98 \pm 0.098$ )은 차이가 있으며( $F=27.17, p<0.001$ ), 과거 통제어려움이 있을수록 사이버섹스 중독 경향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분석결과는 <표 11>에 제시했다.

<표11> 과거 통제어려움과 사이버섹스 중독 정도의 차이

	통제어려움 있음(n=163)		통제어려움 없음(n=104)		F
	M	SD	M	SD	
사이버섹스 중독정도	1.78	0.42	1.98	0.098	27.17***

\* $p<0.05$ , \*\*\* $p<0.001$

## ② 현재 통제어려움

사이버섹스 중독집단과 비중독 집단간의 현재 통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목의 차이와 종류를 살펴보았다. 현재의 통제어려움을 겪는 항목은 과거 통제 어려움을 겪는 항목과 마찬가지로 술, 담배, 마약, 도박, 음식, 성(sex), 일(work), 쇼핑/돈, 없다 로 구성하였다. 사이버섹스 중독집단과 비중독 집단은 현재 통제의 어려움에서도 두 집단간 차이가 나타났다( $\chi^2=58.62, p<0.001$ ). 사이버섹스 중독 집단 내에서 통제어려움을 겪는 항목을 살펴보면, 담배(30.2%), 섹스(20.8%), 음식(13.2%)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사이버섹스 비중독 집단 내에서의 통제의 어려움을 겪는 항목을 살펴보면 ‘없다’(45.1%), 담배(19.7%), 술(11.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는 <표 12> 에 제시했다. 두 집단간의 차이를 보이는 항목을 알아보기 위하여, odds ratio로 카이검정( $\chi^2$ )을 실시했다. 사이버섹스 중독집단은 섹스( $\chi^2=24.21, p<0.001$ )와 마약( $\chi^2=5.26, p<0.05$ )에 있어서 비중독집단보다 유의미하게 통제의 어려움을 겪었다고 볼 수 있다. 비 중독 집단은 ‘없다’ ( $\chi^2=18.13, p<0.001$ )라고 응답한 항목에서 사이버섹스 중독집단보다 유의미하게 차이가 나타났다. 과거와 현재의 통제 어려움을 겪는 항목이 두 집단

<표 12> 현재 통제의 어려움을 겪는 항목

	TOTAL	중독 사례수(%)	비중독 사례수(%)	$\chi^2$
술	37(11.6)	6(11.3)	31(11.7)	58.62***
담배	69(21.6)	16(30.2)	53(19.9)	
마약	3(0.9)	2(3.8)	1(0.4)	
도박	3(0.9)	1(1.9)	2(0.8)	
음식	26(8.2)	7(13.2)	19(7.1)	
성 (SEX)	17(5.3)	11(20.8)	6(2.3)	
일(WORK)	18(5.6)	3(5.7)	15(5.6)	
쇼핑 / 돈	24(7.5)	5(9.4)	19(7.1)	
없다	122(38.2)	2(3.8)	120(45.1)	
	319	53	266	

\*\*\*p<.001

<표 13> 현재 통제의 어려움을 겪는 항목 (odds ratio)

	TOTAL	중독 사례수(%)	비중독 사례수(%)	odds ratio (95% CI)	$\chi^2$
술	11.6	11.3	11.7	.97(.39, 2.44)	.004
담배	21.6	30.2	19.9	1.52(.81, 2.85)	1.68
마약	0.9	3.8	0.4	10.04(.89, 112.71)	5.26*
도박	0.9	1.9	0.8	2.51(.22, 28.18)	.60
음식	8.2	13.2	17.1	1.85(.74, 4.62)	1.78
성 (SEX)	5.3	20.8	2.3	9.20(2.36, 25.97)	24.21***
일(WORK)	5.6	5.7	5.6	1.004(.28, 3.59)	.001
쇼핑 / 돈	7.5	9.4	7.1	1.32(.47, 3.69)	.28
없다	38.2	3.8	45.1	.08(.02, .35)	18.13***

\*p<.05, \*\*\*p<.001

에서 동일하게 나타났다. 분석결과는 <표 13>에 제시했다. 이러한 결과는 연구문제 1의 가설 4를 뒷받침한다. 사이버섹스 중독집단에서 과거와 현재 모두 통제어려움으로 마약 항목이 있는데, 사례수로 살펴보면 2명이며 비중독에서 전혀 나타나지 않는 항목이기 때문에 두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낸 것 같다. 사이버섹스 중독집단이 비중독집단보다 과거 섹스에 대한 통제어려움을 겪는 이용자들이 유의미하게 많은데, Cooper과 Young의 제안대로 섹스 중독의 경향성이 있는 사람은 사이버섹스를 중독적인 사용할 위험이 높다는 이론을 뒷받침하는 결과이다.

두 집단의 현재 통제 어려움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과거 통제어려움의 항목과 동일하게 중독=1로 비중독=2로 리코딩하여 변량분석(ANOVA)를 실시했다. 통제어려움이 있음( $1.76 \pm 0.43$ )과 통제어려움이 없음( $1.99 \pm 0.13$ )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으며( $F=31.27, p<0.001$ ), 현재 통제어려움이 있을수록 사이버섹스 중독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분석결과는 <표 14>에 제시했다.

<표 14> 현재 통제어려움과 사이버섹스 중독 정도의 차이

	현재 중독(n=146)		현재중독 없음(n=122)		F
	M	SD	M	SD	
사이버섹스 중독정도	1.76	0.43	1.99	0.13	31.27***

### 3) 사이버섹스 중독이 관계에 미치는 영향

#### (1) 관계상태

관계 상태는 현재 미혼인지, 기혼인지, 미혼이면서 이성상대가 있는지 여부, 기혼이면서 은밀히 만나는 상대가 있는지, 동거인지의 상태를 말한다.

앞에 제시한 결과에서 사이버섹스 중독집단과 비중독 집단은 인구통계학적 변인 중 관계상태( $\chi^2=36.57, p<.001$ )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각 관계상태의 다섯 집단(기혼/ 기혼·연인있음/ 동거 / 미혼·이성상대있음/ 미혼·이성상대 없음)에서 사이버섹스의 중독 성향을 보이는 집단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변량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중독을 1로, 비중독을 2로 리코딩 하였다. 사이버섹스 중독과 비중독 성향에 따른 5집단의 차이는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F(4,264)=10.38, P<.001$ ). 또한 사후 검증(post hoc)을 통하여 다섯 집단에서 사이버섹스 중독과 비중독 성향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집단을 살펴보았다. 동거집단( $1.25\pm 0.46$ )은 기혼집단( $1.88\pm 0.32$ ), 미혼&상대있음 집단( $1.86\pm 0.35$ ), 미혼&상대없음( $1.94\pm 0.24$ ) 집단보다 사이버섹스 중독성향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기혼&연인있음 집단( $1.62\pm 0.51$ )은 , 미혼&상대없음( $1.94\pm 0.24$ )집단보다 사이버섹스 중독성향이 유의미하게 높음을 알 수 있다. 분석결과는 <표 15 >에 제시했다.

<표 15> 사이버섹스 중독·비중독집단의 관계상태 차이

기혼 (n=69)	기혼 · 연인 有 (n=13)	동거 (n=8)	미혼 · 상대 有 (n=95)	미혼 · 상대 無 (n=84)	F(4,264)	사후 검증 (Post-hoc)
M(SD)	M(SD)	M(SD)	M(SD)	M(SD)		
1.88(0.32)	1.62(0.51)	1.25(0.46)	1.86(0.35)	1.94(0.24)	10.38***	1-3***, 2-5* 3-4***, 3-5***

1-기혼, 2-기혼&연인있음, 3-동거 , 4-미혼&상대있음, 5-미혼&상대없음

\* $p<.05$ , \*\*\* $p<.001$

## (2) 사이버섹스 중독이 결혼생활에 미치는 영향

기혼 사이버 섹스중독 집단과 비중독 집단에서 사이버섹스 중독이 결혼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변량분석(ANOVA)을 실

시했다.

### ① 성생활 만족

사이버섹스 중독집단과 비중독 집단간의 성생활 만족정도에 대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성생활 만족 정도에 대한 두 집단은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며( $F=6.39, p<.014$ ), 사이버섹스 중독집단( $2.64\pm 1.15$ )은 비중독 집단( $3.45\pm 1.12$ )보다 성생활 만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간 성생활이 만족스럽지 못한 것은 사이버섹스에 중독의 요인으로 추측해볼 수 있으며, 사이버섹스에 중독된 사람들이 갖는 선행문제로 부부간 성불만을 제안한 Young(2001)의 이론을 뒷받침하는 결과이다. 분석결과는 <표 16>에 제시했다.

<표 16> 성생활 만족의 차이

	중독(n=14)		비중독(n=69)		F
	M	SD	M	SD	
성생활 만족	2.64	1.15	3.45	1.12	6.39*

\* $p<.05$

### ② 사이버섹스로 인한 결혼생활의 어려움

사이버섹스 중독으로 결혼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정도를 살펴보는 항목이다. 사이버섹스 중독집단과 비중독 집단의 결혼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정도를 살펴본 결과, 사이버섹스 중독집단( $1.85\pm 0.9$ )과 비중독집단( $1.11\pm 0.4$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며( $F=24.02, p<.001$ ) 사이버섹스 중독집단이 비중독 집단보다 결혼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는 <표 17 >에 제시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연구문제 1의 가설 5를 지지한다. 이 밖에 사이버섹스를 이용하는 것이 부부간의 맹세를 저버리는지에 대한 태도

<표17> 사이버섹스 중독으로 인한 결혼생활의 어려움

	중독(n=13)		비중독(n=66)		F
	M	SD	M	SD	
결혼생활의 어려움	1.85	0.9	1.11	0.4	24.02***

\*\*\*p<.001

를 물어보는 문항에서는 두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F=1.44, p>.23).

### (3) 이성 관계에 미치는 영향

사이버섹스가 이성상대(배우자 or 이성)과의 섹스활동을 감소시키는 지를 물어본 문항으로, 1점은 매우 증가에서 5점은 매우 감소를 나타낸다. 사이버섹스 중독집단(2.55±1.03)과 비중독집단(2.75±0.86)의 차이가 나타났으며 (t=-4.44, p<.001) 사이버섹스 비중독 집단이 중독집단보다 사이버섹스 이용이 상대방과의 성적활동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이버섹스가 연애관계(부부관계 or 이성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물어본 문항에서도 두 집단의 차이(t=4.98, p<.001)가 나타났으며 비중독집단 (1.47±0.58)이 중독집단(2.03±0.87)보다 연애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다. Cooper(2001)의 연구결과는 사이버섹스 중독집단이 비중독집단보다 이성상대와의 섹스 활동이 매우 감소하며 연애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제안했다. 본 연구 결과는 Cooper의 연구와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중독집단 중에서도 중증중독이 매우 적으며(1명) 중독집단의 연령대가 대부분 20대에 따른 표본의 편중화로 나타난 결과가 아닐까 추측해본다. 이 밖에 사이버섹스에 중독됐는지를 물어보는 자각 유무의 문항은 사이버섹스 중독집단(1.67±0.48)과 비중독집단(1.95±0.22)은 유의한 차이(F=32.21, P<.001)를 나타냈다.

#### 4. 사이버섹스 중독집단과 비중독집단의 자기통제의 차이

인구통계학적 변인 중 관계상태에서 사이버섹스 중독집단과 비중독집단간의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므로, 관계상태 문항을 통제하여 집단간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통계방법은 공변량(ANCOVA)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사이버섹스 중독집단과 비중독 집단의 특성을 비교한 결과 자기통제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았다. 자기통제는 두 집단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며( $F=38.68, p<.001$ ), 사이버섹스 중독집단( $57.41\pm 5.96$ )이 비중독집단( $66.66\pm 9.40$ )보다 자기 통제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는 <표 18>에 제시했다. 이러한 결과는 연구문제 2의 가설1을 지지한다.

<표 18> 사이버섹스 중독·비중독 집단의 자기통제의 차이

	중독(n=37)		비중독(n=232)		F
	M	SD	M	SD	
자기통제	57.41	5.96	66.66	9.40	38.68***

\*\*\* $p<.001$

#### 5. 사이버섹스 중독집단과 비중독 집단의 우울의 차이

인구통계학적 변인 중 관계상태에서 사이버섹스 중독집단과 비중독집단간의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므로, 관계상태 문항을 통제하여 집단간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통계방법은 공변량(ANCOVA) 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우울에 대한 사이버섹스 중독집단과 비중독집단간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사이버섹스 중독집단( $14.70\pm 10.00$ )이 비중독집단( $8.02\pm 7.32$ )보다 현저하게 우울이 높을 것으로 나타난다( $F=25.25, p<.001$ ). 분석결과는 <표 19>에 제시했다. 이

<표 19> 사이버섹스 중독·비중독 집단의 우울의 차이

	중독(n=37)		비중독(n=32)		F
	M	SD	M	SD	
우울	14.70	10.00	8.02	7.32	25.25***

\*\*\*p<.001

러한 결과는 연구문제 2의 가설2를 지지한다.

## 6. 사이버섹스 중독집단과 비중독집단의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차이

인구통계학적 변인 중 관계상태(relationship status)에서 사이버섹스 중독 집단과 비중독집단간의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므로, 관계상태 문항을 통제하여 집단간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통계방법은 공변량(ANCOVA)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스트레스 대처방식은 4가지의 하위척도로 분류되는데 각각의 하위척도에 대한 사이버섹스 중독집단과 비중독 집단간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적극적 대처방식의 문제 중심 대처방식, 사회적 지지 대처방식, 그리고 소극적 대처방식의 소망적 사고 대처방식은 두 집단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반면 소극적 대처방식의 감정완화 대처방식(8.95±3.12)은 사이버섹스 중독집단과 비중독 집단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F=8.71, p<.005). 즉, 사이버섹스 중독집단은 비중독집단보다 감정완화 대처방식을 더 많이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분석결과는 <표 20>에 제시했다.

<표 20> 사이버섹스 중독·비중독 집단의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차이

	중독(n=37)		비중독(n=232)		F	
	M	SD	M	SD		
적극적	문제 중심	9.16	3.24	9.92	4.09	1.34
	사회적 지지	9.35	3.99	9.85	3.29	0.67
소극적	감정 완화	8.95	3.12	7.42	2.95	8.71**
	소망적 사고	9.70	3.06	10.02	3.30	0.20

\*\*p<.005

## 7. 각 변인들이 사이버섹스 중독에 미치는 영향

### 1)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이용시간, 사이버섹스에 대한 태도 및 영향, 우울, 자기통제,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사이버섹스 중독과의 관계

인구통계학적 변인, 이용시간, 현재와 과거의 통제 어려움, 결혼생활에 미치는 영향, 자기통제, 우울,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사이버섹스 중독/비중독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방법을 사용하여 실시하였다. <표 21> 참조.

분석결과 이용실태의 사이버섹스 이용시간, 과거와 현재의 통제의 어려움, 결혼생활에 미치는 영향의 성생활 만족, 결혼생활의 어려움, 자기통제, 우울, 스트레스 대처방식 중 감정완화 대처방식이 사이버섹스 중독과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이용시간, 과거와 현재의 통제어려움, 성생활 만족, 결혼생활의

<표 21> 각 변인들과 사이버섹스 중독과의 상관

종속변인	독립 변인	R	
사이버섹스 중독정도	나이	-.03	
	인구 통계	성별	-.10
		교육	-.08
		수입	-.01
		이용 실태	인터넷 이용 시간
		사이버섹스 이용시간	.33***
	통제의 어려움	과거 통제어려움	.32***
		현재 통제어려움	.33***
	결혼 생활에 미치는 영향	성생활 만족	-.34*
		맹세를 어김	.23
		결혼 생활 어려움	.5***
	자기 통제		-.4***
	우울		.30***
	스트레스 대처 방식	문제 중심	-.11
사회적 지지		-.02	
감정 완화		.20**	
소망적 사고		-.03	

\*p<.05, \*\*p<.005, \*\*\*p<.001

어려움, 우울, 스트레스 대처방식은 유의미한 정적상관이 나타났으며, 성생활 만족과 자기통제는 유의미한 부적상관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사이버섹스 이용시간이 많을수록( $r=.33$ ,  $p<.001$ ), 과거 통제어려움이 클수록( $r=.32$ ,  $p<.001$ ), 현재 통제어려움이 클수록( $r=.33$ ,  $p<.001$ ), 결혼 생활 어려움이 클수록( $r=.5$ ,  $p<.001$ ), 우울이 높을수록( $r=.30$ ,  $p<.001$ ), 스트레스 대처방식 중 감정완화 대처가 높을수록( $r=.20$ ,  $p<.005$ ) 사이버섹스 중독 경향이 높은 반면, 성생활만족이 높을수록( $r=.34$ ,

p<.05), 자기통제가 높을수록( $r=-.4$ ,  $p<.001$ ) 사이버섹스 중독의 경향이 낮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 2) 인구통계학적 변인 및 이용시간, 사이버섹스에 대한 태도와 영향, 우울, 자기통제,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사이버섹스 중독에 미치는 영향

각 변인들이 사이버섹스 중독에 미치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단계적 중다회귀분석(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인은 앞의 분석에서 사이버섹스 중독과 상관이 있다고 보고된 사이버섹스 이용시간, 과거와 현재의 통제 어려움, 성생활 만족, 결혼생활의 어려움, 자기통제, 우울, 감정완화 대처방식을 포함시켰다. 종속변인은 사이버섹스 중독 정도이다. 분석결과 <표 22>에서 보여지듯이 사이버섹스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기울기( $\beta$ 값) 절대값이 가장 큰 자기통제(-.54), 결혼생활 어려움(.43), 현재 통제 어려움(.31) 순으로 나타났다. 각 변인의 사이버섹스 중독에 대한 설명력은 자기통제가 29%로 가장 높았으며, 결혼생활 어려움이 18%, 현재 통제 어려움이 8%로 나타났다. 즉, 자기통제가 사이버섹스 중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결혼생활 어려움과 현재 통제 어려움을 겪는 변인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결과적으로 자기통제는  $\beta$ 값이 부적(-)으로 즉, 자기통제가 낮을수록 사이버섹스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하며, 나머지는  $\beta$ 값이 정적(+)으로 결혼생활 어려움, 현재 통제 어려움이 높을수록 사이버섹스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2> 사이버섹스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회귀분석결과

종속	예측변인	$R^2$	$R^2$ 변화량	F	$\beta$	t
사이버섹스 중독점수	자기 통제	.29	.29	30.16***	-.54	-5.45***
	자기 통제	.47	.18	32.19***	-.46	-5.30***
결혼 생활 어려움	.43				4.94***	
	자기 통제				-.40	-4.82***
	결혼 생활 어려움	.55	.8	29.55***	.37	4.47***
	현재 통제어려움				.31	3.64**

\*p<.05, \*\*p<.005, \*\*\*p<.001

## IV. 논의 및 제언

### 1. 논의

사이버섹스를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이버섹스로 인해 교육적 효과를 경험하거나 만족을 얻으며, 삶에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 그러나, 소수의 사람들은 사이버섹스로 인해 중독적 성향에 이르게 되어 개인뿐 아니라 사회적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경험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성인 사이버섹스 중독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사이버섹스 중독자의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사이버섹스에 이르는 위험요인을 경험적인 데이터를 통해 발견하여 사이버섹스 중독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고, 그에 대한 효과적인 예방 및 치료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연구결과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 집단에서 중독집단은 14.7%이며 사이버섹스 중독집단의 중독 정도는 경미한 중독이 26명(9.6%), 중등도 중독이 10명(3.7%), 중증중독이 1명(0.4%)로 나타났다. 전체 성인집단에서 사이버섹스 중독집단이 14.7%로 나타난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청소년 사이버섹스 중독연구에서는 김민(2003) 연구에서 5.7%, 이상준(2003) 연구에서 7.8%의 중독률을 보였다. 성인 사이버섹스 중독이 높은 것은 사이버섹스 중독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중독적 경향성을 갖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성인들은 사이버섹스 이용에 있어서 큰 제재와 비판없이 성적 욕구 해소와 교육적 목적을 갖는 정상사용 범위를 넘어서 중독적 사용으로 쉽게 몰입할 수 있다. 따라서, 사이버섹스 중독에 대하여 심각한 사회적 문제

로 인식할 필요가 있으며 치료적 개입뿐 아니라 예방적 교육이 매우 요구된다.

둘째, 사이버섹스 중독집단은 성인 사이트와 성인 방송을 통해 사이버섹스를 이용하며, 비중독 집단은 이메일을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중독 집단이 이메일을 통해 사이버섹스를 접하는 이유는 광고성 음란 스팸 메일의 증가로 원하지 않아도 음란 메일을 자연스레 접하기 때문이다. 성인 사이트와 성인 방송은 현실에서 접해보지 못한 음란하고 변태적인 성행위를 보여주며 이로 인한 성적 각성의 상승은 중독적·의존적인 경향성을 갖게 한다. 사이버섹스 중독자들은 반복적으로 더 자주 이러한 매체를 이용하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중독된다. 성인 사이트와 성인 방송의 위험성을 인지하는 것이 필요하며, 음란물에 대한 필터 프로그램 등의 이용은 일정 수준 이상의 음란물 접속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이버섹스 중독을 예방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사이버섹스 이용시간은 중독집단이 비중독집단보다 이용시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Cooper(2001a)의 연구결과 역시 사이버섹스 중독집단에서 훨씬 더 많이 이용 시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버섹스 이용시간이 많을수록 중독이 더 높아지며 삶에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나며 직업적, 사회적, 여가적인 차원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Cooper(2001a)는 사이버섹스 이용시간이 많다는 것은 중독과 의존의 시작점이 된다고 제안했다. 정해진 시간동안 사이버섹스를 이용하는 것이 중독을 예방하는 것임을 시사한다.

셋째, 사이버섹스의 동기는 중독집단과 비중독 집단을 분류하는 요인이 된다. 기분전환 혹은 휴식을 위해 사이버섹스를 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성적 자료를 사거나 자위행위 등을 솔직하게 하면서 중독적 성향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중독이 되는 소수의 사람들은 스트레스 해소, 성적 흥미를 나

늘 사람과의 만남, 섹스 자료구입, 이성과의 데이트, 오프라인에서의 만남, 실제로 할 수 없는 섹스를 하기 위해서 사이버섹스를 한다. 이처럼 사이버섹스의 동기는 사이버섹스 중독자와 비중독자를 분류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며, 중독 요인으로 성적 강박 행동 때문인지, 혹은 스트레스나 우울 등의 심리적 요인인지 등을 구별함으로써 어떤 요인이 중독에 이르는지 밝히는 것은 치료적 접근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사이버섹스 중독집단은 비중독집단보다 현실에서 하지 못한 섹스를 온라인에서 한다고 4배나 많은 응답을 보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현실에서 하지 못한 섹스를 온라인에서 하는 것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다. 현실에서 하지 못한 섹스를 온라인에서 함으로 자유를 누리고, 성적인 보다 많은 만족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파트너가 할 수 없거나 거부하는 성적 공상을 보다 쉽게 몰입함으로써 즉각적인 만족과 더불어 쾌감을 느낌으로써 반복적이고 성적 상승을 유발하는 행동들을 빠르게 학습한다. 이는 매우 빠르게 중독적 성향이 나타날 수 있다. 현실과 사이버공간이 분리된 성생활이 지속될 경우 친밀한 관계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현실 생활의 성적인 불만족이 중독자와 상대방 모두에게 나타날 수 있다.

사이버섹스 중독자들의 동기를 연구하는 것은 중독을 예측하고 평가하며 중독 원인에 따른 분류로 치료적 접근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넷째, 과거나 현재 섹스에 통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사이버섹스에 중독될 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Cooper(2001a)의 연구에서도 중독자들에서 과거와 현재 섹스에 대한 많은 통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고했으며 Young(2001b)은 섹스의 과거력이 있는 이용자들이 사이버섹스에 중독될 위험이 높다고 제안했다. 섹스에 대한 과거력이 없는 사람도 사이버섹스에 중독될 수 있으나 섹스에 대한 과거와 현재 통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사

이버섹스에 중독될 경향성이 더 높다. 이들이 우연히 섹스사이트 혹은 성인 방송을 접하게 되면 일반 이용자와 달리 성에 대한 중독적·의존적 성향이 발현하여 성적 강박 행동으로 사이버섹스에 쉽게 중독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은 성적 문제 행동이 인터넷 범위로까지 넓어지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중독자와 차별화된 치료적 접근에서 재발과 예방을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다섯째, 동거집단은 기혼, 기혼&연인있음, 미혼&이성상대 있음의 집단보다 사이버섹스 중독 성향이 더 높았다, Cooper(2001a)의 연구에서 싱글이면서 이성상대가 있는 집단이 중독적 성향이 높았다. 현실에서 성행위가 가능한 집단이 사이버섹스에서 성적 판타지를 실행할 경향성이 높으며, 사이버섹스에 의존할수록 현실의 상대방과의 관계가 멀어질 수 있다. Cooper연구의 질문지에는 없지만, 우리나라의 현실태를 반영하기 위하여 동거 항목을 포함시켰다. 그 결과 예상했던 것보다 동거 집단에서 사이버섹스 중독성향이 높게 나타났다. 이 집단에서 중독 경향성이 높게 나타난 것은 미혼집단보다 쉽게 성적 실행을 옮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결혼과 달리 관계에 대한 책임이 무겁지 않기 때문에 보다 쉽게 사이버섹스에 몰입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동거집단에서 사이버섹스 중독의 심각성을 인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섯째, 결혼 생활에서 성만족이 낮을수록 사이버섹스에 중독되는 경향성이 높다. Young(2000)은 부부간의 성불만족 문제는 사이버섹스를 유발하는 요인 중 하나로 보고했다. 또한, 사이버섹스에 중독성향이 높을수록 결혼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나타났다. 중독자들은 스트레스, 관계 문제, 성적인불만족 등의 문제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사이버섹스를 한다. 이들 대부분이 적응적인 관계로 발전시키거나 갈등을 해결하는 기술이 부족하다. 문제 해

결의 방편으로 사이버섹스를 반복적으로 하며 사이버섹스로 인해 배우자의 성불만족이 높아지며, 관계에 문제가 나타난다. Schneider(2001)는 사이버섹스 중독은 부부간의 성적 흥미를 잃게 하며, 성관계의 단절을 가져오며, 결혼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고했다. 중독자뿐만 아니라 그들의 배우자가 겪는 어려움을 연구한 결과 그들의 배우자는 보이지 않는 사이버 연인 혹은 음란물속의 상대와 경쟁해야 하는 사실에 무기력해하고 있었으며, 이들 중 중독 배우자와의 관계 단절로 별거, 이혼을 한 사람이 22.3%, 별거나 이혼 등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들이 63%에 달했다. 사이버섹스 중독은 결혼생활의 어려움을 유발한다고 볼 수 있다. 기혼인 사이버섹스 중독자가 배우자와의 낮은 성만족이 원인이 되어 사이버섹스 중독 성향을 보인다면 부부의 성만족을 높이는 치료적 개입이 필요하며, 또한 사이버섹스에 중독이 된 기혼자들의 가정의 문제에 대한 치료적 개입을 할 때 배우자의 성불만족을 살펴봐야 할 것이다. 기혼 중독자들은 개인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가정 전체에 문제가 일어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일곱째, 사이버섹스중독 집단에서 음란물을 보는 것이 이성상대와의 성생활을 증가시킨다고 나타나고, 비중독 집단에서는 감소시킨다고 나타났다. 또한, 사이버섹스중독 집단에서 음란물을 보거나 음란 채팅을 하는 것이 성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의 항목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쪽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Cooper(2001a)에 따르면 사이버섹스 중독경향성이 높을수록 이성상대와의 섹스활동이 매우 감소한다(중독자의 78%, 비중독자의 65%)고 보고했다. 또한 중독경향성이 높을수록 실제 연애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했다. 이러한 결과를 나타내는 이유를 살펴보면, Cooper의 연구에서 중증 사이버섹스 중독 집단에서는 사이버섹스가 매우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반면, 경미한 중독 집단에서는 오히려 이성관계에 긍정적 영향을 나타낸다고 보고했다. 이처럼, 본 연구에서

는 전체 중독집단에서 경미한 중독 피험자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이버섹스가 성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사이버섹스로 인한 성생활이 증가한다는 결과는 전체 중독집단이 20대 초반의 미혼 중독자가 많은 것을 미루어 볼 때 성생활 경험이 적은 것이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여덟째, 심리적 특성으로 자기통제가 낮을수록 사이버섹스에 중독될 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더 큰 만족을 위해 욕구를 지연하기 보다는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사이버섹스에 더 쉽게 중독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자기 통제가 낮기 때문에 사이버섹스에 중독될 수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사이버섹스의 특성으로 인해 중독이 되면 자기 통제가 약해질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우울성향이 높을수록 사이버섹스에 중독될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성향이 있는 이용자들은 불쾌감, 우울 같은 감정을 벗어나기 위한 수단으로 사이버섹스를 이용한다. 사이버섹스를 하는 순간에는 우울 감정을 떨칠 수 있을지라도 다시 감정이 반복되면 사이버섹스를 지속적으로 하게되어 중독적 성향이 된다. 우울로 인해 사이버섹스에 중독되는 사람들은 우울에 대한 치료적 개입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스트레스 대처가 부족할수록 사이버섹스에 중독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중독집단에서 적극적 대처방식 보다는 소극적 대처방식을 더 많이 사용한다고 나타났다. 이들이 스트레스 대처방식 중 감정완화 대처방식을 많이 사용하는 것은 스트레스를 통제 불가능한 것으로 인지적 평가를 내리며 운명이나 요행, 권력과 같이 외부적인 것에 기인하여 스트레스가 발생한다고 보는 외부적 통제신념이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사이버섹스 중독집단은 스트레스가 발생했을 때 스트레스 상황을 바꾸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기 보다는 통제 불가능하며 자신의 노력으로 바뀌나갈 수 없다고 인지한다.

그래서 중독집단은 비중독집단보다 감정완화의 대처방식을 더 많이 사용하며, Cooper(2001a)의 이론처럼 스트레스 상황과 그로 인한 어려운 감정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이버섹스를 한다고 볼 수 있다.

아홉째, 여러 가지 변인들 중 어떤 변인이 사이버섹스 중독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본 결과, 자기통제, 결혼생활의 어려움, 현재 통제 어려움 순으로 사이버섹스 중독을 영향력 있게 설명하고 있다. 즉, 자기통제가 제일 많은 설명력을 갖는데, 인터넷 중독과 마찬가지로 사이버섹스 중독 역시 즉각적인 만족을 지연시키지 못하는 심리적 특성이 사이버섹스 중독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 통제 어려움 중 섹스 통제의 어려움 역시 통제력의 문제로 일반적인 자기 통제 뿐 아니라 현재 일어나는 섹스 통제 어려움은 중독에 이르는 요인이 됨을 보여준다. 특히, 결혼생활의 어려움은 기혼자가 사이버섹스에 중독되었을 때 결혼생활에 어려움을 유발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의 시사점을 살펴보면, 우선, 미개척 분야인 인터넷 중독의 하위영역인 한국의 성인 사이버섹스 중독에 대한 연구를 실시했다는 점과 온라인 설문방법을 통해 사이버섹스 중독에 대한 설문을 실시함으로써 솔직한 응답을 얻을 수 있었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사이버섹스의 접속동기, 성의 과거력, 결혼생활에서의 성만족, 이용시간 등의 다양한 변인을 설정함으로써 사이버섹스 중독에 이르는 요인을 발견할 수 있었다. 중독자들의 중독요인을 구별하는 것은 사이버섹스 중독에 대한 평가와 결과를 예측하며 또한 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사이버섹스 중독이 이성관계와 결혼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사이버섹스 중독의 위험성을 알릴 수 있음을 시사한다.

## 2. 연구의 제한점 및 제언

본 연구에서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이버섹스 중독집단을 표집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섹스에 관한 설문 내용으로 거부감을 느끼는 일반 피험자들이 많았다. 그 중 특히, 중독집단은 스스로 온라인 설문사이트를 방문하거나 설문지를 직접 받아서 실시하는 방법에 있어서 설문 자체를 거부하거나 설문내용을 끝까지 마치지 않은 이들이 많았다. 대부분의 중독집단은 경미한 피험자들이며 종종 중독 피험자를 얻는데 한계가 있었다. 또한 개인 연구로써 사이버섹스에 대한 주제는 설문 홍보의 기회를 얻기 힘들었으며, 비용면에서도 적절한 홍보 방법을 마련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보다 체계적인 온라인 설문방법이 요구된다. Cooper(2001a)는 MSNBC 뉴스사이트와 연계하여 1000번째 접속자마다 설문창이 나타나는 pop up 창을 만들어서 약 7037명의 유효한 데이터를 얻었다. 사이버섹스 중독에 대한 솔직하고 체계적인 데이터를 얻기 위해선 Cooper가 사용한 연구방법과 같은 체계적인 온라인 설문방법을 이용하여 전체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을 얻는 것이 요구된다.

둘째, Young의 사이버섹스 검사지에 기재된 것을 사용하여 일정 점수를 기준으로 중독집단과 비중독집단의 분류를 하였으나 중독집단과 비중독 집단의 차이가 컸으며 중독집단과 비중독집단의 경계에 있는 피험자들을 정확히 두 집단으로 구분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사이버섹스 중독 집단과 일반이용집단의 정확하고 체계적인 중독 준거를 마련하는 것이 요구된다.

셋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사이버섹스 중독 검사지는 한국적 상황이 고려되지 않았으며 타당도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또한, 대부분 자기 보고형 측정방식을 사용하여 본 연구 결과에 반응편향이 생겼을 수 있기 때문에 주위사람들의 평정을 같이 활용하는 검사지가 요구된다.

넷째, 사이버섹스 중독인 집단과 섹스중독이면서 사이버섹스 중독인 집단의 치료적 접근이 다르지 않을까 예측해본다. 따라서, 사이버섹스 중독과 섹스 중독의 관련성과 두 중독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두 집단에 대한 특성을 연구함으로써 차별화된 치료적 접근을 시도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사이버섹스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심리적 변인에 대한 연구, 그리고 사이버섹스 중독 기혼자 집단에서 중독자 본인과 그들의 배우자, 그리고 그들의 자녀를 대상으로 사이버섹스 중독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연구는 매우 가치 있을 것이다.

## 참고 문헌

- 김민 (2003).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과 사이버섹스 중독실태 연구.  
청소년 복지 연구, 5(1), 53-83.
- 김은정(1999). 자기 표상과 자의식 성향이 스트레스 대처 방식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 논문.
- 김종범, 한종철 (2001) 인터넷 중독 하위 집단의 특성 연구- 자존심, 공격성, 외로움, 우울을 중심으로. 한국 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 치료, 13(2),207-219.
- 김종옥, 조옥귀 (2001). 중고등학생의 자기통제력, 사회적 환경 요인 및 인터넷·게임 중독과의 관계. 교육 이론과 실천, 12(2).
- 김주연 (2002). 초등학생의 인터넷 중독 경향과 관련 요인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 논문.
- 김정희 (1987). 지각된 스트레스, 인지 세트 및 대처방식 우울에 관한 작용-대학 신입생의 스트레스 경험을 중심으로. 서울 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 논문.
- 권영구 (2001) 스트레스 대처 방식과 인터넷 중독의 상관에 관한 연구.  
울산 대학교 대학원 석사 논문.
- 권정혜 (2000). 감각 추구 성향, 스트레스, 대처방식, 사회적 지지가 인터넷의 중독적 사용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 연차 학술 발표대회 논문집, 270-271.
- 남영옥 (2002).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및 사이버 성중독의 심리사회적 변인과 문제 행동 연구. 한국 사회 복지학, 50, 173-207.
- 남영옥, 이상준 (2002). 청소년 사이버섹스 중독과 사이버음란물 접속 및

- 성행동과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9(3), 185-212.
- 맹미희 (2003). 스트레스, 자기통제력, 충동성, 자아 존중감과 인터넷 중독의 상관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 박소희 (2002). 대학생들의 인터넷 중독과 사회적 지지 및 스트레스와의 관계. 건국 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 박성자 (2002) 스트레스, 자기통제력, 사회적 불편감 및 부모 태도가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교육 대학원 석사 논문.
- 심영희 (2001). 사이버 성폭력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 성폭력 상담소.
- 성윤숙 (2000). 사이버일탈과 여성.
- 송소원 (1999). 대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스트레스 지각수준, 스트레스 대처 방식의 관계 연구. *상명 대학교 학생 생활 연구소: 학생 연구*, 12
- 송원영 (1998). 자기 효능감과 자기 통제력이 인터넷의 중독적 사용에 미치는 영향. 연세 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 안 석 (2000). 인터넷의 중독적 사용에 관한 연구 - 서울 소재 중학생을 대상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 논문.
- 이계원 (2001).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관한 연구. 이화 여자 대학교 대학원 석사 논문.
- 이상준 (2003). 인터넷 섹스 중독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특성과 정신건강 연구. *한국 사회복지학*, 55, 341-364.
- 이송선 (2000). 청소년의 컴퓨터 게임중독과 정서적 특성과의 관계. 서울 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 논문.
- 이시영, 이세용, 김은정, 오승근 (2000).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과 자녀 교육. 삼성생명 공익재단 사회정신 건강연구소.
- 윤재희 (1998). 인터넷 중독과 우울, 충동성, 감각추구성향 및 대인관계의 연관성.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 논문.

조해연 (2002).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중독과 성격 특성 변인 연구 : 자기 효능감, 자기 통제력, 공격성, 충동성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 논문.

주리에, 하승수, 권석만 (2002). 인터넷 음란물을 자주 찾는 남녀 대학생의 심리적 특성과 성 행동. *한국 심리학회지: 임상*, 21(4), 965-982.

주석진 (2002). 사이버 섹스 중독이 청소년의 성비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 논문.

정경란 (2001).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경향과 가족의 심리적 환경 및, 불안, 우울간의 관계.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정철영 (2000, 10). 제 2차 밤 생활 혁명의 안과 밖. *신동아*, 642-646.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 운동본부 (2000).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증후군 및 음란물 접촉행위에 관한 연구, p2

최민정 (2000). 인터넷 중독적 사용과 우울감, 자기 효능감 및 감각 추구 성향의 관계.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 논문.

한국정보문화센터(2001). 인터넷 중독현황 및 실태 조사. 서울:

한국정보문화센터(2001. 12.) 인터넷 중독 상담사 양성 교육 프로그램 개발.

중앙일보 (2000. 6. 1.)

한국일보 (2001.3. 10.)

Cooper, A.D., Sportolari, L. (1997). Romance in cyberspace: Understanding online attraction. *Journal of Sex Education and Therapy*, 22(1), 7-14

Cooper, A.D.(1998). Sexuality and the Internet : Surfing into the new millenium. *CyberPsychology and Behavior*, 1, 187-194.

Cooper, A.D., Putman,L.A.(1999). Online Sexual Compulsivity : Getting

- Tangled in the Net. *Sexual Addiction & Compulsivity*. 6(2): 79-104
- Cooper, A.D., Scherer, C., Boies, S. C., & Gorden, B.(1999). Sexuality on the Internet: From sexual exploration to pathological expression. *professional Psychology: Research and Practice*, 30, 154-164.
- Cooper, A.D. Delmonico, D., & Burg, R. (2000). Cybersex users, adusers, and compulsives: *New findings and implications. sexual Addiction and Compulsivity: Journal of Treatment and Prevention*, 7, 5-30
- Cooper, A.D.(2001a). Online Sexual Problems: Assessment and Predictive Variables. *Sexual Addiction & Compulsivity*. 8:267-285
- Cooper, A.D.(2001b). Running Head : Demographic Differences In OSA.
- Cooper, A.D.(2004). Online Sexual Activity: An Examination of Potentially Problematic Behaviors. *Sexual Addiction & Compulsivity*. 11:129-143
- Lazarus, R. S., & Folkman, S. (1984). *Stress, appraisal*. New York, Springer Publishing Co.
- Leiblum, S. R.(1997). Sex and the net: Clinical implications. *Journal of Sex Education and Therapy*, 22, 21-28
- Logue (1995). *Self-control*. New-York ; Prentice Hall
- Schneider, J. P.& R. Weiss, Cyber Exposed : *Simple Fantasy or Obsession?* (Minnesota : Hazelden, 2001), p. 10.
- Schneider, J. P.(2000). A Qualitative study of Cybersex Participants: Gender Differences, Recovery Issues, and Implications for Therapists. *Sexual Addiction & Compulsivity*. 7(4), 249-278
- Schneider, J. P.(2001). Effect of Cybersex Addiction on the Family: Result of a Survey, *The Dark Side of the Force*, Sexual

Addiction & Compulsivity special edition, 31-58

Young, K. S.(1998a). *Caught in the net: How to recognize the signs of internet addiction and a winning strategy for recovery*, New York: John Wiley & Sons, Inc.

Young, K. S.(1997). The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and Internet addiction, *CyberPsychology and Behavior*, 1(1), 24-28

Young, K. S.(1998b). Internet addiction: The emergence of a new clinical disorder. *CyberPsychology and Behavior*, 1(3), 237-244

Young, K. S.(1999). Net Compulsion: The latest trends in the area of internet addiction. [http://netaddiction.com/net\\_compulsion.htm](http://netaddiction.com/net_compulsion.htm).

Young, K. S., Eric G.S. Cooper A.D.,(2000). Online Infidelity: A New Dimension in Couple Relationships with Implications for Evaluation and Treatment,, *Cybersex: The Dark Side of the Force*, Sexual Addiction & Compulsivity special edition, 59-73

Young, K. S.(2002). Getting Web Sober: Help for Cybersex Addicts and their loved ones. netaddiction center e-book.

Young, K. S.(2001). *Tangled in the Web : Understanding CYBERSEX from Fantasy to Addiction*.

Sprenger, P.(1999). The porn pioneers. The Guardian, 2-3. [on-line]

# **ABSTRACT**

## **Factors Influencing Cybersexual Addiction**

**Yin-young Chin**

**Department of Psychology**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out the psychological and social characteristics of cybersexual addicts, investigate the conditions influencing cybersexual addiction and its consequences, and suggest an effective mediating program for sexual addicts.

Two hundred seventy one adult subjects were recruited through an online survey and paper survey; 14.7% of the subject pool were identified as addicts. Subjects were classified into an addict group (37 people) and non-addict group (233 people) according to the Cybersexual Addiction Index. The questionnaires used in this study include a survey on attitude and behaviors regarding cybersexual addiction by Cooper, a self-control measurement by Kendall & Wilcox (1979), and a stress coping measurement by Folkman & Lazarus (1985).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

The demographic differences of cybersexual addicts and non-addicts were not significant, excluding relationship status. The medium for

viewing cybersex and hours per week in engaging in cybersex had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both groups, however. The addicted group had preferences for adult websites and adult television channels than the non-addicted group who had preferences for online chats. The addicted group also spent more hours per week engaging in cybersex than the non-addicted group. There are a number of other differences between cybersex addicts and non-addicts. Non-addicts were significantly more likely than their addicted peers to engage in cybersex for distraction. In contrast, cybersex-addicted respondents were significantly more likely to engage in cybersex for exploring sexual fantasies, meeting sex partners, and buying sex materials. Cybersexual addicts were also more likely than the non-addicts to engage in cybersex because they don't relate to other people easily and form sexual relationships in the real world. The addicted group had having more past difficulty with sex than the non-addicted group. The addicted group was more likely to engage in cohabitation than the non-addicted group as well (e.g., other group: married, married but having additional secret romantic and sexual relations, single& dating, single & not dating) and had less satisfaction in their sexual life than the non-addicted group. In addition to these differences, the cybersexual addicts had more difficulty in their marriages than the non-addicts and had low self-control, high levels of depression, and more stress with relieving painful emotions.

There were high correlations between cybersex addiction and the number of hours spent engaging in cybersex, low self-control, high levels of depression, and high levels of stress with relieving painful emotions. The self-control, present difficulty with sex, difficulties in the marriage were

significant variables that led to cybersex addiction. According to results, the development of an effective treatment for cybersex addicts and their spouses is important and necessary.

# 부 록

I. 사이버섹스 중독의 태도 및 영향에 관한 질문지

II. Young의 사이버섹스 중독 검사지

(The Cybersexual Addiction Index: CAI)

III. 자기 통제 척도

IV. 스트레스 대처방식 척도

V. Beck의 우울 척도(BDI)

## 사이버섹스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설문지

- 본 조사의 내용은 통계법 제 8조에 의거하여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 본 설문은 만 18세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중한 시간을 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설문지는 인터넷 중독에 관한 연구의 일환으로, 사이버섹스 중독과 관련된 연구를 위해 설계된 것입니다. 설문지의 문항들은 개개인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일 뿐, 옳고 그르거나 좋고 나쁜 것이 없으므로 여러분의 생각과 행동에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것에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시고, 한 문항도 빠짐없이 솔직하게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응답은 중요한 연구 자료로 소중하게 활용될 것이며, 응답하신 모든 내용은 익명으로 통계 처리되어 오직 연구의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입니다.

설문지 작성에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귀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 설문 소요시간은 약 10 분입니다.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임 상 심 리 학 과

I. 다음 질문들은 인터넷에서 음란물을 보거나 혹은 음란 채팅을 하는 등의 사이버섹스와 관련된 여러분의 태도를 살펴보기 위한 질문입니다.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오니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시고, 빠짐없이 솔직하게 응답해주시시오. (1-18)

1. 당신의 나이는?      만 (            ) 세
  
2. 당신의 성별은?      (            )  
① 남성            ② 여성
  
3. 당신의 학력은?      (            )  
① 중졸이하      ② 고졸            ③ 대학재학            ④대졸  
⑤ 대학원재학    ⑥ 대학원졸 이상
  
4. 당신의 직업은?      (            )  
① 학생  
② 주부  
③ 행정 및 관리직 (기업체 중역, 5급 이상 공무원)  
④ 전문 기술직 및 관련직 (의사, 약사, 교수, 교원, 연구원, 변호사)  
⑤ 판매직 (도소매영업, 보험판매원, 판매원)  
⑥ 사무직 (사무원, 비서, 은행원, 6급 이하 공무원)  
⑦ 서비스직 (요식, 숙박업, 조리사 등)  
⑧ 생산직 종사자  
⑨ 농림 수산업, 임업, 광업  
⑩ 성직자  
⑪ 무직  
⑫ 기타
  
5. 한 달 총 수입은?      (            )  
① 100만원 미만            ② 100-200만원 미만            ③ 200-300만원 미만  
④ 300-400 미만            ⑤ 500만원 이상

6. 당신은 인터넷을 일주일에 평균 얼마나 사용합니까? ( )
- ① 7시간 미만 (하루 평균 1시간 미만)    ② 7 - 14시간 (하루 평균 약 2시간)  
③ 15 - 21시간 (하루 평균 약 3시간)    ④ 22 - 28시간 (하루 평균 약 4시간)  
⑤ 29 - 35시간 (하루 평균 약 5시간)    ⑥ 36시간 이상 (하루 평균 5시간이상)

7. 인터넷 음란물을 보거나 음란채팅을 하는데 가장 많이 이용하는 매체는?  
( )
- ① 이메일                      ② 성인채팅사이트                      ③ 성인사이트, 성인방송  
④ 모바일(휴대폰,PDA)    ⑤ P2P(구루 구루, 당나귀, 깬블 등)  
⑥ 와레즈 사이트                      ⑦ 기타

8. 인터넷 음란물을 보거나 음란채팅을 하는 장소는? ( )
- ① 집    ② 직장(또는 학교)    ③ 집과 직장 둘 다    ④ PC방    ⑤ 기타

9. 인터넷 음란물을 보거나 음란채팅을 하는데 일주일 평균 어느 정도의 시간을 보냅니까?  
( )
- ① 7시간 미만 (하루 평균 1시간 미만)    ② 7 - 14시간 (하루 평균 약 2시간)  
③ 15 - 21시간 (하루 평균 약 3시간)    ④ 22 - 28시간 (하루 평균 약 4시간)  
⑤ 29 - 35시간 (하루 평균 약 5시간)    ⑥ 36시간 이상 (하루 평균 5시간이상)

10. 인터넷 음란물을 보거나 음란채팅을 하기위해 온라인에 접속하는 이유는?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 )
- ① 교육적인 목적을 위하여                      ② 기분전환/휴식을 위하여  
③ 스트레스 해소를 위하여                      ④ 이성과 데이트를 하기위하여  
⑤ 오프라인에서 섹스를 함께할 사람을 만나기 위하여  
⑥ 성적 흥미를 나눌 사람을 만나기 위하여  
⑦ 실제로 할 수 없는 섹스를 하기위해  
⑧ 섹스자료를 구입하기 위하여

11. 온라인에서 섹스자료를 보는 것은 이성상대(배우자 or 이성)와의 섹스활동을  
\_\_\_\_\_ (ex.증가시킨다) ( )
- ① 매우 증가 시킨다                      ② 약간 증가 시킨다  
③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④ 다소 감소 시킨다                      ⑤ 매우 감소 시킨다

12. 인터넷 음란물을 보거나 음란채팅을 하는 것은 실제 내 연애관계 (부부 관계 or 이성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 )

- ① 아니오                      ② 예, 약간                      ③ 예, 전적으로

13. 나는 현실에서 하지 못했던 섹스를 온라인에서 한다. ( )

- ① 결코 아니다              ② 거의 드물게 그렇다              ③ 종종 그렇다  
④ 자주 그렇다              ⑤ 항상 그렇다

14. 나는 과거에 \_\_\_ 을 지나치게 사용하거나 통제에 어려움이 있었다.

(적용되는 것을 모두 선택하십시오) ( )

- ① 술              ② 담배              ③ 마약              ④ 도박              ⑤ 음식  
⑥ 성(SEX)      ⑦ 일(Work)      ⑧ 쇼핑/돈      ⑨없다

15. 나는 현재 \_\_\_ 을 지나치게 사용하거나 통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적용되는 것을 모두 선택하십시오) ( )

- ① 술              ② 담배              ③ 마약              ④ 도박              ⑤ 음식  
⑥ 성(SEX)      ⑦ 일(Work)      ⑧ 쇼핑/돈      ⑨없다

16. 직장에서 인터넷 음란물을 보거나 음란채팅 하기위해 온라인에 접속하는 이유는?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 )

- ① 교육적인 목적을 위하여                      ② 기분전환 / 휴식을 위하여  
③ 스트레스 해소를 위하여                      ④ 데이트 할 사람을 만나기 위하여  
⑤ 성적 관심을 함께 나누기위하여  
⑥ 내가 실제로 할 수 없는 섹스를 하기 위하여  
⑦ 직장에서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⑧ 직장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⑨ 집에서 그렇게 하는 것을 불편해하기 때문에  
(예, 배우자나 애인이 싫어하기 때문에)

17. 나의 이성 관계는? (한 가지만 체크하세요) ( )

- ① 기혼                                      ② 기혼이나 은밀히 만나는 연인이 있다  
③ 동거                                      ④ 싱글(미혼or이혼)이고 이성상대가 있다  
⑤ 싱글(미혼or이혼)이고 이성상대가 없다

\* 17-1~17-3 까지는 16번 문항에 ‘기혼’ 이라고 응답한 분만 체크해주세요.

17-1. 나는 현재 배우자와의 성생활에 만족한다. ( )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대체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그렇다    ⑤ 정말 그렇다

17-2. 나는 인터넷 음란물을 보거나 음란 채팅에 몰입하는 것이 부부간의 맹세를 저버리는 것이라 생각한다. ( )

- ① 예    ② 아니오

17-3. 나는 현재 인터넷 음란물을 보거나 음란채팅 때문에 결혼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 )

- ① 결코 아니다    ② 거의 드물게 그렇다    ③ 종종 그렇다  
④ 자주 그렇다    ⑤ 항상 그렇다
- 

18. 나는 인터넷 음란물을 보거나 음란채팅을 하는데 중독된 것 같다. ( )

- ① 예    ② 아니오

II. 다음은 사이버섹스에 관한 척도입니다. (19-38)

사이버섹스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이버섹스(cybersex)**란 온라인(인터넷, 휴대폰 등) 접속시 성적 호기심이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성관련 웹사이트, 동영상, 성인방송 기타 인터넷 음란물 등을 충동적으로 혹은 지속적으로 몰입해 보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파트너를 찾아 성인 대화방을 이용, 성적 자료, 공상을 나누거나 자위행위를 하는 일체의 행동을 포함합니다.

\*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오니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시고, 빠짐없이 솔직하게** 응답해 주십시오.

\* 다음의 문장을 읽고 귀하가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자주 그와 같이 느끼는지에 따라 해당 항목에 체크 해 주십시오.

	결코 아니 다	아주 드물 게 그렇 다	가끔 그렇 다	종종 그렇 다	자주 그렇 다	항상 그렇 다
19. 온라인 접속 시 사이버섹스에 적지 않은 시간을 허비하는 것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20. 이성친구보다 사이버섹스를 통한 성적 친밀도가 높은 편이다.						
21. 오로지 사이버섹스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채팅을 하거나 개인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시간이 많다.						
22. 온라인 접속에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에 대해 가족이나 친구들이 염려 한다.						
23. 사이버섹스로 인해 학교에서나 가정에서 해야 할 일을 잘 수행하지 못한다.						
24. 누군가 인터넷에서 무엇을 했느냐고 질문할 때 숨기고 싶거나 방어적인 태도를 취한다.						
25. 사이버섹스나 포르노사이트 접속이 불가능해지면 불안해지거나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화가 난다.						

	결코 아니 다	아주 드물 게 그렇 다	가끔 그렇 다	종종 그렇 다	자주 그렇 다	항상 그렇 다
26. 사이버섹스가 없는 생활이 따분하고 공허하며 재미가 없을까봐 염려 한다.						
27. 사이버섹스를 할 때마다 자위행위를 한다.						
28. 인터넷 사용에 방해를 받으면 소리를 지르거나 화를 낸다.						
29. 사이버섹스 이용으로 밤을 새거나 잠을 잘 자지 못한다.						
30. 오프라인 때(인터넷을 사용하지 않을 때) 사이버섹스에 대한 환상에 빠진다.						
31. 성관련 사이트(성인대화방, 포르노사이트, 성인방송국 등)를 발견하면 즐겨찾기에 추가를 한다.						
32. 스트레스가 많은 날이거나 어떤 일을 마친 다음에는 사이버섹스를 한다. (어떤 일에 대한 보상으로 사이버섹스를 한다)						
33. 현실생활에서 평범하게는 채워지지 않는 성에 대한 환상을 맛보기 위해 익명의 대화를 하곤 한다.						
34. 성적으로 새로이 눈뜨거나, 만족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다음 온라인 접속을 기대 한다.						
35. 당신에게 소중한 사람들(가족, 친구 등)에게 온라인상에서의 성적 접속을 숨기려고 한다.						
36. 사이버섹스에서 폰섹스나 혹은 오프라인에서의 성적 행동으로 옮기려 한다.						
37. 사이버섹스를 한 후 수치심이나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다.						
38. 남을 속이거나 비정상적인 온라인 성적 행동을 한다.						

III. 다음은 자기 통제력에 관한 척도입니다. (39-59)

다음은 여러분의 평소 생활태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평소에 여러분의 생활방식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곳에 체크해주세요.

	전혀 그렇 지 않다	대체 로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 로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39. 누군가가 일을 맡기면 믿을 만큼 해내는 편이다.					
40.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한 완성도가 들쭉날쭉함이 없이 거의 비슷하다.					
41. 장기적인 목표를 두고 하는 일이 있다.					
42. 부모님이나 윗사람의 말을 잘 듣는 편이다.					
43. 해야 할 일을 곧잘 잊어버린다.					
44. 누군가가 질책하면 아무 변명이라도 생각해서 둘러대곤 한다.					
45. 실수를 자주 하는 편이다.					
46. 항상 반복적으로 해야 하는 일을 빼먹을 때가 있다.					
47. 일이 손에 잘 잡히지 않을 때가 있다.					
48. 남의 물건에 손을 댄 적이 있다.					
49.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을 방해한 적이 있다.					
50. 기본적인 예의를 잘 지킨다.					
51. 길이나 주변을 잘 살핀다.					
52. 이것저것 생각나는 말을 늘어놓기보다 깊이 생각하고 한 번에 말하는 편이다.					

	전혀 그렇 지 않다	대체 로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 로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53. 한 가지 일을 하다가 다른 일이나 생각에 정신을 팔곤 한다.					
54. 다른 사람들이 나를 주의 깊은 편이라고 들 한다.					
55. 친구들은 규칙을 잘 지키거나 협동하는 면에서 나를 좋아한다.					
56. 한 번에 한 가지 일을 하고 이것저것 손을 대지 않는다.					
57. 일을 혼란스럽게 만들곤 한다.					
58. 행동하기 전에 곰곰이 생각하는 편이다.					
59. 한 번에 너무 여러 가지 일을 벌이지 않고 하나에 집중해서 하는 편이다.					

IV. 다음은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대한 척도입니다. (60-83)

최근 가장 스트레스 받았던 사건을 생각해보세요.

가장 스트레스 받았던 사건을 포함하여 보통 스트레스를 경험할 때를  
 생각해보세요.

이 일들을 다루어가기 위하여 어떤 방법을 사용하였는지 응답해주세요.  
 (스트레스 대처방법)

각 문항의 내용을 읽으시고, 아래 해당하는 점수에 체크해주세요.

- 이 방법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 1번
- 이 방법을 약간 사용 한다. ... 2번
- 이 방법을 어느 정도 사용 한다. ... 3번
- 이 방법을 아주 많이 사용 한다. ... 4번

[예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대처하기 위한 방법으로 )

\* 시간이 지나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 ① 사용하지 않음
- ② 어느 정도 사용
- ③ 아주 많이 사용
- ④ 약간 사용

	사용 하지 않음	약간 사용	어느 정도 사용	아주 많이 사용
60. 활동계획을 세우고 그것에 따른다.				
61. 무엇을 해야 할지 알기 때문에 일이 더 잘되도록 더 열심히 노력한다.				
62. 일이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공상이나 소망을 한다.				
63. 내가 처한 지금의 상황보다 더 좋은 경우를 상상하거나 공상한다.				

	사용 하지 않음	약간 사용	어느 정도 사용	아주 많이 사용
64. 문제를 구체화 할 수 있는 사람과 이야기를 한다.				
65. 존경하는 분이나 친구, 선배에게 조언을 구한다.				
66.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리려고 노력한다.				
67. 그 일을 무시해 버리거나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68. 그 일(스트레스 되는 일)에서 무엇인가 다른 창조적인 일을 할 수 있는 단서를 얻는다.				
69. 일이 잘 되어 나갈 수 있도록 무엇인가를 변화시킨다.				
70. 운으로 돌린다. ( 때로는 운이 나쁠 수도 있으니까. )				
71.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것처럼 행동한다.				
72. 그 일이 사라지거나 끝나버리기를 바란다.				
73. 일어난 일(또는 상황)이나 나의 느낌을 바꿀 수 있기를 바란다.				
74. 자신이 느끼고 있는 바를 누군가에게 말한다.				
75. 그 일에 대해 좀 더 알아보려고 누군가와 이야기한다.				
76. 그 문제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그것을 자세히 분석해본다.				
77.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전념한다. - 다음 단계의 준비				
78. 그 일을 잊기 위해 다른 일을 하거나 다른 활동을 한다.				
79. 다른 사람에게 분풀이 한다.				
80. 그 일이 지금보다 더 나쁠 수도 있었음을 스스로 일깨운다.				
81. 그 일이 잘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사용 하지 않음	약간 사용	어느 정도 사용	아주 많이 사용
82. 전문적인 도움을 요청한다.				
83. 다른 사람들의 공감과 이해를 받아들인다.				

V. 다음은 우울에 관한 척도입니다. (84- 104)  
 다음 문항을 읽고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자신의 상태를 가장 잘 나타냈다고 생각되는 항목 한 가지를 골라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84. ① 나는 슬프지 않다. ( )  
 ② 나는 슬프다.  
 ③ 나는 항상 슬프고 기운을 낼 수 없다.  
 ④ 나는 너무나 슬프고 불행해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
85. ① 나는 앞날에 대해서 별로 낙담하지 않는다. ( )  
 ② 나는 앞날에 대한 용기가 나지 않는다.  
 ③ 나는 앞날에 대해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느낀다.  
 ④ 나의 앞날은 아주 절망적이고 나아질 가망이 없다고 느낀다.
86. ① 나는 실패자라고 느끼지 않는다. ( )  
 ② 나는 보통 사람들보다 더 많이 실패한 것 같다.  
 ③ 내가 살아온 과거를 되돌아보면 실패 투성이 인 것 같다.  
 ④ 나는 인간으로서 완전한 실패자라고 느낀다.

87. ① 나는 전과 같이 일상생활에 만족하고 있다. ( )  
② 나의 일상생활은 예전처럼 즐겁지 않다.  
③ 나는 요즘에는 어떤 것에도 별로 만족을 얻지 못한다.  
④ 나는 모든 것이 다 불만스럽고 싫증이 난다.
88. ① 나는 특별히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 ( )  
② 나는 죄책감을 느낄 때가 많다.  
③ 나는 죄책감을 느낄 때가 아주 많다.  
④ 나는 항상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다.
89. ① 나는 벌을 받고 있다고 느끼지 않는다. ( )  
② 나는 어쩌면 벌을 받을 지도 모른다는 느낌이 든다.  
③ 나는 벌을 받을 것 같다.  
④ 나는 지금 벌을 받고 있다고 느낀다.
90. ① 나는 나 자신에게 실망하지 않는다. ( )  
② 나는 나 자신에게 실망하고 있다.  
③ 나는 나 자신에게 화가 난다.  
④ 나는 나 자신을 증오한다.
91. 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못한 것 같지는 않다. ( )  
② 나는 나의 약점이나 실수에 대해서 나 자신을 탓하는 편이다.  
③ 내가 한 일이 잘못되었을 때는 언제나 나를 탓한다.  
④ 일어나는 모든 나쁜 일들은 모두 내 탓이다.
92. ① 나는 자살 같은 것은 생각하지 않는다. ( )  
② 나는 자살할 생각을 가끔 하지만 실제로 하지는 않을 것이다.  
③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자주 든다.  
④ 나는 기회가 있으면 자살하겠다.
93. ① 나는 평소보다 더 울지는 않는다. ( )  
② 나는 전보다 많이 운다.  
③ 나는 요즘 항상 운다.  
④ 나는 전에는 울고 싶을 때 울 수 있었지만 요즘은 울래야 울 기력조차 없다.

94. ① 나는 요즘 평소보다 더 짜증을 내는 편이 아니다. ( )  
 ② 나는 전보다 더 쉽게 짜증이 나고 귀찮아진다.  
 ③ 나는 요즘 항상 짜증을 내고 있다.  
 ④ 전에는 짜증스럽던 일이 요즘은 너무 지쳐서 짜증조차 나지 않는다.
95. ① 나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잃지 않고 있다. ( )  
 ② 나는 전보다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줄었다.  
 ③ 나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어졌다.  
 ④ 나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완전히 없어졌다.
96. ① 나는 평소처럼 결정을 잘 내린다. ( )  
 ② 나는 결정을 미루는 때가 전보다 많다.  
 ③ 나는 전에 비해 결정을 내리는 데 큰 어려움을 느낀다.  
 ④ 나는 더 이상 아무 결정도 내릴 수 없다.
97. ① 나는 전보다 내 모습이 나빠졌다고 느끼지 않는다. ( )  
 ② 나는 나이 들어 보이거나, 매력 없어 보일까봐 걱정한다.  
 ③ 나는 내 모습이 매력 없이 변해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든다.  
 ④ 나는 내가 추하게 보인다고 느낀다.
98. ① 나는 전처럼 일을 할 수 있다. ( )  
 ② 어떤 일을 시작하는데 전보다 많은 노력이 든다.  
 ③ 무슨 일이든 하려면 나 자신을 매우 심하게 채찍질해야만 한다.  
 ④ 나는 전혀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다.
99. ① 나는 평소처럼 잠을 잘 수 있다. ( )  
 ② 나는 전에 만큼 잠을 자지는 못한다.  
 ③ 나는 전보다 한 두 시간 일찍 깨고 다시 잠들기 어렵다.  
 ④ 나는 평소보다 몇 시간이나 일찍 깨고 한 번 깨면 다시 잠들 수 없다.
100. ① 나는 평소보다 더 피곤하지는 않다. ( )  
 ② 나는 전보다 더 쉽게 피곤해진다.  
 ③ 나는 무엇을 해도 피곤해진다.  
 ④ 나는 너무나 피곤해서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101. ① 내 식욕은 평소와 다름없다. ( )  
② 나는 요즘 전보다 식욕이 좋지 않다.  
③ 나는 요즘 식욕이 많이 떨어졌다.  
④ 요즘에는 전혀 식욕이 없다.

102. ① 요즘 체중이 별로 줄지 않았다. ( )  
② 전보다 몸무게가 2Kg가량 줄었다.  
③ 전보다 몸무게가 5Kg가량 줄었다.  
④ 전보다 몸무게가 7Kg가량 줄었다.

\* 나는 현재 음식 조절로 체중을 줄이고 있는 중이다 ( ① 예, ② 아니오)

103. ① 나는 건강에 대해 전보다 더 염려하고 있지는 않다. ( )  
② 나는 여러 가지 통증, 소화불량, 변비 등과 같은 신체적 문제로 걱정하고 있다.  
③ 나는 건강이 너무 염려되어 다른 일은 생각하기 힘들다.  
④ 나는 건강이 너무 염려되어 다른 일은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다.

104. ① 나는 요즘 성(sex)에 대한 관심에 별다른 변화가 있는 것 같지 않다. ( )  
② 나는 전보다 성(sex)에 대한 관심이 줄었다.  
③ 나는 전보다 성(sex)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줄었다.  
④ 나는 성(sex)에 대한 관심을 완전히 잃었다.

- 이제 설문을 마쳤습니다. 설문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감사의 글

많은 어려움 속에서 드디어 논문을 완성했습니다. 국내 연구가 미흡한 이 주제를 가지고 논문 자료를 수집하는 것부터 설문을 완성하여 인터넷에 올리고 설문지를 배포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여러분들의 도움과 격려를 받으며 나름대로 열심히 썼는데도 논문을 볼 때마다 부족한 부분이 자꾸 눈에 들어옵니다. 먼저 어려움 속에서 논문을 무사히 마치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언제나 지켜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알맞은 때를 예비해주심에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랜 시간 논문을 준비하며 지도해주시고 조언을 아끼지 않으셨던 채규만 교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논문을 심사해신 김명선 교수님과 이정윤 교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한국 학생의 이메일에 대하여 성의있는 답변과 발표되지 않은 연구논문과 질문지를 보내주신 *San Joe Marital and Sexuality Centre & Pacific Graduate School of Psychology*의 AL Cooper 교수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료를 얻을 수 있는 곳을 추천해주시고, 학회지를 얻을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신 주성대학의 김민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김민 교수님의 학회에 기재하신 사이버섹스 중독 질문지를 보내주신 호서대 조성연 선생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번안하신 사이버섹스 중독 질문지를 보내주신 이상준 선생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사이버섹스 중독에 관한 교육 자료를 보내주신 한국 정보 문화진흥원 인터넷 중독 예방상담센터의 김미화 선생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설문 방법에 대한 조언을 해주신 연세대 황상민 교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논문 설문을 인터넷에 올리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온라인 설문을 만드는데 너무 많은 고생을 한 남편 준범오빠와 사랑하는 친구 정빈이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설문지를 배포하고 온라인 설문을 도와준 친구 정빈이와 주연이, 혜민언니, 상원오빠, 철원오빠, 준범오빠 후배님, 케냐 목장 식구분들, 형부, 도와준 친구들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설문 홍보하랴 코딩하랴 고생한 준영도련님과 회사분들을 동원하여 열심히 참여해 준 준훈 도련님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언제나 사랑으로 부족한 며느리를 챙겨주시는 시부모님과 무한한 사랑과 격려로 지켜봐주시는 친정 부모님과 식구들에게 진정한 감사를 올립니다. 또한, 항상 기도로 후원해주시고 격려해주시는 복전도사님과 목사님 이하 케냐목장 식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어려운 프로그램으로 온라인 설문을 짜고, 설문지를 배포하고, 논문 때문에 제대로 생활을 하지 못한 불편함을 감내하며, 논문의 전체적인 부분을 체크해주면서 열심히 응원하고 격려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사랑하는 내 남편 준범오빠에게 무한한 감사와 사랑을 보냅니다. 부족한 논문을 끝까지 읽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